

응당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바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간사하다. 지혜로와서 사념(邪念)을 일으키지 않고 정도(正道)를 생각하면 도가 이루어진다.

법구경·도행품 397절

양캠 99학년도 학위수여식 진행

서울캠 15일 중강당에서 ... 경주캠 17일 문무관에서

서울캠

99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박사 72명, 석사 4백93명, 학사 2천2백62명으로 총 2천8백27명이다.

학사전체 수석은 1백42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4.30을 받은 김인선(경영4)양이, 전체차석은

4.22를 받은 조혜영(지교4)양과 정재홍(경영4)군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회수의 나이에 불교대학원에서 4.38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사이버지 김영수씨와 산업기술환경대학원에서 4.25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만학도 머느리 이성숙씨가 나란히 석사학위를 받게 되어 주위의 축하를 받고 있다.

각 단과대별 수석졸업자는 △불교대=최미남(신학 4.19) △문과대=윤상찬(일문 4.18) △이과대=황수진(통계 4.16) △법과대=김태규(법 4.08) △사과대=이희정(경영 4.20) △경상대=김용

범(회계 3.98) △생자대=조나영(산림자원 4.05) △공과대=김승원(컴공 4.11), 전수영(컴공 4.11) △사법대=한경호(수교 4.08) △예술대=김소정(연영 4.04) △야간강좌=신수진(영문 4.21) 등이다.

경주캠

경주캠의 경우 99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1천6백77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열린다.

경주캠퍼스 전체수석은 평점 4.40을 받은 인문과대학 영중섭(철학4)군이, 전체차석은 평점 4.30을 받은 백현정(의)양이 각각 차지했다.



이제 학위수여식은 아쉬움과 설렘을 나누는 자리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전체수석을 차지한 영중섭군은 "딤편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고, 수강한 과목이 절에서 이미 배운 것들의 연장이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본교 대학원 불교

학과에 원서를 넣어 놓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각 단과대 수석 졸업자를 살펴보면 △불문대=전행정(신학 4.33) △인문대=강시현(사회복지 4.31) △자연대=최은아(수교 4.21) △법

경제대=김은경(국제관계 4.17) △상경대=정유경(경영 4.22) △한의대=임경남(한의 4.04) △의대=서현주(의 3.96) △야간강좌=남중주(컴퓨터 4.19)등으로 전체적인 평점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대학부

지면안내

졸업 테마



책 분야의 명작들을 들어본다.

12면

'졸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졸업식의 변천과 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기자가 권한하는 영화·음악·

전기학위수여자 명단

6, 7, 8, 9면

퇴임교수 인터뷰

10면

21C 문화사업

11면



시작과 끝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기차를 타고 많은 역을 지나며 여행을 하였는데, 깨어보니 자기가 누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신라시대 의상(625-702) 스님이 화엄경을 30구의 시로 요약하면서 그 중심사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 비유로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고 가도 본래자리, 이르고 이르러도 떠나온 자리(行行本處 至至發處)'라고 읊었다.

중생이 보살행이라는 수행을 거쳐 부처가 되고 보니 사실은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본래 부처님 나라인 정토인 것이며,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인 여래성이 그대로 나타난 존재(如來出現)이다.

그러나 자신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꿈속에서는 알지 못하고 깨어보아야 알 수 있듯이,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아니한 존재임도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토는 또한 우리가 자각하여 구현해 내어야 하는 세계인 것이다.

도달한 자리가 바로 출발한 그 자리인 도리는 원인과 결과가 다르지 아니한 진리(因果不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시작과 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마지막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시작인 원인과 그 성질을 같이한다. 아니 시작이 끝 끌고 끌고 끝 시작인 것이다.

대학이라는 배움터에서 학업을 마치는 졸업식이 곧 치러질 예정이다. 학장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생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새 세계로 뛰어드는 신입생이기도 하다.

연제 어디서나 인과의 진리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선>

eunsun@cakra.dongguk.ac.kr

불교병원 건립기금

포공스님 1억원 기증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불교계와 동문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지난 달 17일 대각사 불미니 법회 참석자이기도 한 포공스님(77·대각사)이 병원건립기금으로 평생동안 모아온 1억원을 기부했으며, 18일에는 김진문 동문(경영·71졸·사진)이 1억원을 약정했다.

방송을 통해 보도된 불교종합병원 건립 소식을 듣고 익명으로 뜻을 전한 포공스님은 평소 근검절약하기로 유명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평생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본교와 중국 상해중의약대학이 지난달 20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은 한의학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수 및 학생교류 △학술정보교환 △기타 문화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협정이며 작년 8월 9일 본교 한의과대학과의 교류 의향서 조인이 구체화된 것이다. 한편 본교 문과 대학은 일본 류슈산업대학 국제문화학과와 지난달 19일 단과대간 학술 교류 일반협정을 체결했으며 세부적인 협정도 이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국 사립대 '등록금 저지' 연대투쟁

교육부장관 면담요구·민주남부운동 등 ... 대정부 압박 예상

본교를 비롯한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방침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와 교육부 항의방문을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 5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대학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TV공개 토론회를 요구했다. 이어 11일에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교육대책위)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전국 1백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중요공원에 모여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재정확충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교육재정 국민총생산의 6% 확보' 대선공약 불이행을 등록금 인상의 원인으로 보고,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전국대학생

들의 조직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이 결정된 대부분 대학의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측의 등록금 고지서 발송을 저지하는 '등록금 백지화 운동'과 지난 해와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민주남부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재학생들의 가정으로 공문을 발송해 등록금 납부 연기운동에 동참할 것을 알리는 등 학교측의 인상 계획에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3차례의 등록금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등록금이 동결되지 않는 한 3월까지 납부연기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 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처장 등 학교측 관계자와 김태광(국교3) 부총학생회장, 이영수(전통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 등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등록금 협의의 주된 내용은

일산에 건설중인 불교종합병원 건설기금 마련방안과 98학년도부터 제기되었던 이월적립금에 대한 것 등이다. 학생대표들은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빈곤층 1천만 시대에 이월적립금을 남겨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월적립금은 사용 계획에 따라 적립된 특정목적기금"이며 "건축기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측은 "제2도서관 신축공사와 지난 2년동안 임금을 동결한 교직원노조에서 14.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측의 등록금 13%인상 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사실상 이주대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실랑이는 새학기에 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장학제도 대폭 개선

성적우수장학과 가사장학 통합

본교는 2000학년도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통합을 전제로, 교내 장학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수혜인원도 확대했다.

기존의 장학제도는 성적순에 따라 장학금을 선발함으로써 본래의 장학목적에 잘 달성하지 못했고, 대학 및 학부(과)별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학교당국에 대한 불만을 초래했다. 또한 학업지도교수가 그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성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생지도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먼저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단과대수석장학금은 예전과 같이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학부(과)수석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에서 등록금의 72%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과 가사장학을 우수장학(가정)으로 통합하고 등록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우수장학금은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학업지도교수가 평가하고 학과주임교수 또는 대학장이 심사한다. 우수장학생 선발에는 △학업성적(60점) △가정형편(20점) △사회봉사(10점) △학업지도교수 평가(10점)의 네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 학업지도

교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잘못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발기준은 전공과목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학과특성에 따른 기여도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모의자동차 제작 등의 활동에 대한 불만을 초래했다. 또한 학업지도교수가 그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성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생지도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선된 장학제도는 시행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000학년도 1학기는 시범기간으로 설정하여 종전과 같이 성적순으로 추천하되, 개선내용의 선발 기준항목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신입생 장학제도 역시 새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이번 변경사항 중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최초선발자에 한한 장학금지급이 최종합격자로 조정되었고, 형제자매 중 재학생이 있는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감면해주는 가족장학을 신설하였다. 또한, 모의토의성적 상위 2%이내의 학생에게는 해외단기연수 특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

eunsun@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기획광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게된
당신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동대신문사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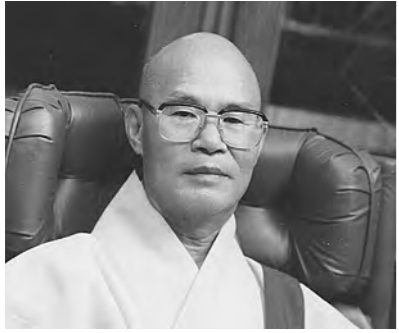
영원한 모교(母校) ... "교정을 떠나보아야 학교다닐 때가 좋은 줄 알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눈덮인 포근한 배움의 터를 뒤로한 채, 떠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촬영=송광수 동문

치사

9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식사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대

참사람의 생을 살아가기를

넓은 바다로 희망찬 항해를 시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동안 새로운 정보문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지성과 어떠한 도전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불퇴의 정진력과 의지, 그리고 우주와 인생의 참다운 모습을 투철히 볼 수 있는 지혜를 모교 동국대학교에서 갈고 닦아 왔습니다.

특히 졸업생 여러분들은 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간, 주제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인간의 길을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참 사람의 생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불교계와 동국가족의 성원은 물론, 송석구 총장님의 지극한 원력과 헌신적인 추진력

에 힘입어 개교 100주년의 금자탑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1세기에 새 문명시대 선도할 이념을 창출하여 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혜의 아카데미가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모교를 떠난 후에도 늘 동국 가족이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동국대학교가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의 명문 사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모교의 위상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거듭 오늘의 뜻깊은 졸업과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를 축하하며, 졸업생 여러분의 봉정만리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녹 율
이사장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신천지를 개척하는 동국인이 되길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오늘 이 뜻 깊고 경사스러운 졸업식전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동국학원 오록원이사장님과 재단 임원 여러분, 권노갑 총동창회 회장님과 동창회임원님과 내외귀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을 이날의 영광으로 정성을 다해 이끌어 주신 학부모임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의 대화해·대생명의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고 94주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동국대학교를 떠나 세계를 무대로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역량을 펼쳐려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 세계를 가슴에 안고 당당히 신천지를 개척하는 동국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사실 인류의 전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도기적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할 변화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참다운 진리의 힘을 먼저 신뢰하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옹명정진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기를 당부합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듯이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한다면 결국은 모든 일에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에서 절차탁마한 그 역량이라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인공됨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효율과 실용을 중시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지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행복을 주는 발고여락의 미덕을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물질화 되고 개인화 되는 사회에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청량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공고하게 세우는 엄숙한 분발의 장이며, 미래를 일구는 선도가 될 것을 약속하는 장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영예롭게 이 자리에 서게된 졸업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인간적 가치의 구현에 앞장서 온 우리 동국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 준 모든 동국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송 석 구
총장

식당시설 개선 요망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겠지 하고 약간(?)의 기대를 하며 다시 찾은 학교. 그러나 내 예상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다름 아닌 식당을 찾으면서였다.

몇년 전에 비해 분위기와 위생상태는 많이 좋아진 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건 시설과 메뉴의 다양성이었다. 여전히 썰렁한 학생회관 식당과 공장창고 같은 도서관 식당, 터무니 없는 가격의 원효관 교수식당, 그리고 튀니튀니 해도 그 형편없는 식당조차 없는 자연대 건물...

이제는 식당에 대해 더 이상 가질 불만조차 없다. 학기중 계속되는 여문수령과 조사, 개신사함 요구 등등 정말 우리 학생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학교 당국은 등록금 인상보다 가장 근본적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한영진
(자연대 생물학과 94)

선택의 기회 넓혀주는 자율적 수업 요구

동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으로 인한 고통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치열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 일률적인 학업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넓혀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골짜기가 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분야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당국이 얼마나 이윤배반적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한다.

물론 학교당국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강의의 신설이나 증설 등이 부족하였고 또한 학생들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당국이 더욱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학교당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학생복지는 학업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고 보다 편안하고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인 것이다.

더이상 시간짜맞추기식으로 학점을 채우기 위한 강의를 듣지 않을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학기에는 듣고 싶은 강의를 듣게 되길 바란다.

박찬영
(사과대 행정학과)

학생회는 학우들의 공동관심사를 이끌어 내어 함께 고민해야 할 것

내가 복학해서 느낀 학교는 너무나 답답했다.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과 그들을 이끌어주는 학생회의 모습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 당국이 특성화·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을 소홀히 하고, 시대의 흐름을 저버리는 수동적인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즉 학우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회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우선은 학생회가 학우들의 공동관심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우들과 학생회의 괴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 당국이 특성화·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을 소홀히 하고, 시대의 흐름을 저버리는 수동적인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생회의 짐을 가중시켰고, 학생회는 그 짐에 치여 학우들과 멀어지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육부장관과 그에 따른 일관

성 없는 교육정책도 학생회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만들고, 홀로가는 학생회가 되도록 만든 한 이유인 것이다. 새천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정작 달라진 건 없다. 올해 역시 등록금이 오르고 BK21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학우들과 학생회간의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간다. 탁용달 (사과대 북한학과 3)



소나기

이런 국회의원 안된다!



정:정말 짜증 나는 사람들.
치:치사하고 비열한 인간들.
인:인간들은 그들을 정치인이라 한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
육 잘하기로 소문난 정치인.
이런사람들 제명시키는 법은 없나?
△그랬었군... 정계의 축수가 대학까지...
△눈만 뜨면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기자회견 해서 지난 일을 뒤집는 철권 칸 정치인 싫어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싶니?" "난 가수" "난 탤런트" "난 국회의원" "왜 그런데?" "멋있잖아요" "풀 나잖아요" "어쨌든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 뻑 하면 결석하는의원
두울: 나오긴 나왔는데 출고있는 의원

세엿:함참 졸다가 다른 당에서 뭐라고 하면 감정부터 앞세워 욕하고 날뛰는 의원
네엿: 그런 상황에서도 뇌물은 확실히 챙기는 의원...
다섯: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병원에 누워서 괴병부리고 수 쓰는 의원.
△봐서 국회의원처럼 보이는 아그
△말할하는 사람
△행쇠-맨날 뺨만 치는 인간형
결떡쇠-맨날 이당 저당 결떡거리는 인간형
장(長)쇠-늘어~지게 해먹으려 질기게 빠타는 인간형
△자기집 떡값이 오천만원이 안되면서 떡값 받아 먹은 놈⇒요즘 떡값은 오천만원인가?
△국회에 참여도 안 하면서 월급 받는 어르신들.
△자나깨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땅 눈독 들이는 정치인.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잊어버리는 사람
△국회예다가 의원원을 짓고자 하는 정치인.
△어제는 하나당 내일은 두나당
△정치하다가 종치는 정치인
△정말 치사하게 인사하는 사람
△공뿔지만 멋있게 차고 다니는 상류층
△이런 국회의원 안 된다... 이런 학교도 안 된다. 삼각도 동경도 아니고, 등록금을 13%나 인상시키더니 차라리 돈 없으면 배우지 말라고 말을 하지...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불사른 유찬오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반려자가
△기계·화학 R·O·T·C 졸업을 축하한다.
-별이가
△김홍민! 생일 축하해!
-사범대 친구들
△승수형! 생일(14)추카! 졸업(15)추카!
경사가 겹쳤군요. 하지만 매서운 사회바람과 싸우기 힘들겠어요! 언제나 파이팅!
-준/위 일동
△20! 생일(3.2) 미리 추카해!
-표를 싸랑하는 신문사 식구들
△졸업하시는 모든이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쌀렁이

인원이가 형 취직 축하드려요. 몸 건강하세요.
-비람
열심히 하시다
△ '실개천' 열심히 하세요. Huki야 고생해라.
-K
△공대 역사기행 모임 <백두대간> 백두대간 종주에 그 시작을 힘차게!
-홍범이가
△사범대의 모범으로 등록금 투쟁 승리하자!
-임사장
△새로 문친 학복위 식구들 올한해 학우들과 함께 열심히 삽시다! 서화도 파이팅
-쌀렁이
△장우성!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0831
△사범대 집행부! 열심히 행복하게 삽시다.
-쌍장
△사범대 학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꼭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선배가

은방글
축하합니다
△해만, 원대, 인호, 장락, 용문, 재한, 민, 애경... 동국연극회 영아들 졸업 축하합니다.
-f1003(무대광풍)
△경남야! 어때? 동대신문에 니 이름도 새겨졌어! 기본 어때? 짱 이지! 입학 축하해~. 열심히 해.
-D.H
△민영이 형 졸업 축하 드리고요 언제나 형이 가르쳐 주신 주도 홀약인간 이념처럼 널리 이롭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기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날을 위해... 난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항상 내속에 있는 그녀에게요...
-wind,phi
△Valentine Day 그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

을 위해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내 마음 앞지
△선에 오빠 용재님 군대가요.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며 선에도 힘내고 꼭 기다리길 바래.
-m.r
TEL : 22603491 · 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dgpress
나우누리 ID:동대신문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새내기, 바쁘다 바빠”

신입생 O.T., 16일부터 5일간... 전체 O.T.·새터 등

200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전체오리엔테이션은 '우리들의 배움터 동국'이라는 주제로 오전 8시 50분부터 △학교 홍보영상물 상영 △승석구 총장 환영사 △교가 배우기 및 불교합창단 공연 △조성재 동문 특강 △'지랑스러운 동국인' 영상물 상영 △이무영 경찰청장 특강 △몽게구름, 백상응원단, 재학생 연예인 류시원·채정안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는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하는 모의 토익시험, 4시 30분부터는 수강신청 예비교육이 실시된다.

17일 학내에서 오전 9시부터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전공별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한편, 야간강좌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6시부터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18일부터 20일까지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가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학) 주최로 속초 현대해밀리 콘도에서 진행된다.

다. '자주의 시대 청년의 약속' 화우 사랑 조국사랑의 결정체'를 표어로 하는 이번 새터는 △18일 입교식, 중앙공연, 단과대별 행사 △19일 중앙 청년 강좌, 단과대별 대동놀이, 문화행사 및 공연 △20일 단과대별 평가 및 귀가 순으로 진행되며 중앙공연에서는 노래공연과 연극 등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입생 신체검사는 본관 보건소에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하며 신입생 수강신청기간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인 내일(18일)부터 20일까지이다.

조교제도 개선안 시행 무산

계속적인 논의통해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000학년도 조교제도 개선안이 학교당국과 대학원생들간의 의견차이로 무산된 가운데 조교협의회(이하, 조교협), 대학원총학생회와 학교당국간의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획인사처에서 지난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1%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은 다음달 1일부터 △조교 인원의 증가 △업무량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원 총학생회측은 학교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기존 수준의 처우가 보장된다는 전제가 없는 가운데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설문이었다는 것 △예산 산부터 편성하고 정해진 예산 속에서의 개선은 개선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결국 조교에 대한 처우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학교측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지난해 12월 조교협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조교협은 학교측과 몇 차례 협의를 가졌으며,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작성, 학교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당국 또한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작성했으나 조교협은 이 수정안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교학과 조교제도를 폐지하는 등으로 조교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2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것과 설문조사결과 72.3%가 조교의 처우는 업무량에 따라 분배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 그리

고 단기간내에 기존 조교업무에 대해 직임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교협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관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다른 학교와 비해서 절대 낮은 예산은 아니며, 오히려 예산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조교협은 "6억정도가 추가 편성되면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학교측은 "10억원 이상이 증액되어야 조교협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교협은 "현재의 조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학교측과의 논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조교처우 개선을 전제로 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측도 개선안을 일단 보류시킨 상태에서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조교협과의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당분간 타협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roket123@dgu.ac.kr

이색졸업자 인터뷰

“며늘해보고 동창생, 동창생합니다”

희수(喜壽), 주위를 둘러보자. 일흔일곱 노인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 사람마다 백양백색이겠지만 여기, 희수의 나이에 석사모를 쓰게되는 이가 있다. 오는 2월 15일 “경허성우의 생애와 선사상연구”라는 논문으로 불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는 김영수 씨.

“94년 어느날 버스에서 고승열전 ‘경허선사’편을 들었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태일을 사서 듣고 또 듣고 한겨울 불교입문의 계기라면 계기지요.” 말에 함내음이 은은하다.

그래도 어렵지 않았을까. 돌보기를 끼고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예상일이 아닐텐데, “2년동안 단 한번도 강의에 빠진일이 없어요. 단 한번도. 그래서 그런지 성적도 잘 주시더라고요. 논문 쓰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논문을 써야 얻게 있습니다. 심사하느라 애써주시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경허성우의 생애와 선사상을 나름대로 정성껏 정리했다는게 뿌듯합니다.”

1951년 고등고시 행정과 2회 합격해서 교단, 공무원, 사업, 정계까지의 우여곡절 일생을 들으면서 기자는 한번 놀라고, 그의 가족이야기를 듣다 또 한번 놀라고 만다. 7남매 모두 장성했지만, 그중 넷째며느리가 산업기술헌경대학원에서 ‘청정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같은날 시아버지와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는데.

“한마디로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있지요. 김치는 조금 못담금지 몰라도 예의범절 바르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노력하고, 우리 넷째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내 논문을 못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기가 일일이 원고를 입력해 줬거든. 자기 논문 쓰는것도 힘이 들었는데 말이야”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자는 입까지 짝 벌어진다. 며느리 이상속씨도 정말 대단하다. 마흔의 나이에 집안일도 벅할텐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줌마’의 이름으로 석사논문은 마친다는 것이 어디 보통일인가.



“내가 며늘해보고 동창생, 동창생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거북할 것이라고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의논도 하고 세상에 대해 대화도 하고, 지성적 공감대가 형성되니 참 좋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교이야기에 흥이났을때와는 또 다르게 말을 아낀다. 시어머니와 동서, 시누이 시생애에 갇혀 넷째가 눈총을 받을까 염려스러운 시아버지의 행을 며느리 사랑때문이라. 흰소와 누렁소 중 어느 소가 낫냐는 황희의 물음에, 목소리를 낮추는 농부의 지혜가 엿보인다.

남은 여성 불교공부 특히 선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싶다는 김영수씨는 건강에 대해서도 잠갔다. “마음을 항상 허공처럼 넉넉히 가지고, 선사상을 실천하면서 절 집안의 전통생활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병마도 침범 못하겠지요.”

오는 15일 졸업식장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석사모를 쓰고 있다면 분명 이틀일테니 다시한번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 열린교육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국인의 모습일테니, 대학부

채란 장학생 25일부터 29일까지 모집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2000학년도 상반기 채란장학생을 선발한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여성직인을 배출하자는 취지로 선정하는 채란 장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부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서 1부와 성적증명서 1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원봉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관 1층에 자리한 여학생실에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지원서를 배부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며, 봉사정신이 강한 5명을 채란장학생으로 선발해 각각 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주 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단, 교내의 타 장학금 수여대상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생 2백15명 선발

지난 1일 마감한 2000학년도 1학기 편입학전형에서 2백15명이 선발됐다.

지난 달 21일 마감된 원서접수 결과 △21.8:1의 경쟁률을 보인 일 반편입학은 85명 △1.7:1의 경쟁률을 보인 학사편입학은 12명 △군위탁 편입자 5명이 선발됐다. 연극영상학부는 75.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고수동정

▲황훈성(영문학)=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 화순에서 열린 영어영문학회 총회에서 ‘메타드라마의 정치성’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재남학술논문상을 수상.
▲임동희(사학)=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하와이대학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 in the Millennium’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A Korea Lineage Copes with Industrialization’ 논문 발표.
▲이기동(사학)=지난 1일 발표된 제 41회 ‘3·1문화상’에서 신라 사회사 연구에 공헌한 공로로 인문·사회과학부문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식은 3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가든호텔.

▲이경호(사학)=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 화순에서 열린 영어영문학회 총회에서 ‘메타드라마의 정치성’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재남학술논문상을 수상.
▲임동희(사학)=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하와이대학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 in the Millennium’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A Korea Lineage Copes with Industrialization’ 논문 발표.
▲이기동(사학)=지난 1일 발표된 제 41회 ‘3·1문화상’에서 신라 사회사 연구에 공헌한 공로로 인문·사회과학부문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식은 3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가든호텔.

회전무대

너를 믿었는데

O...너희가 탁상공론을 아느냐? 요즘들어 본관 경비실의 삼엄한 경계태세(?)가 스물스물 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데.

알아보니, 작년 12월부터 학내 음식물반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관에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각종 음식물이 배달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는 머릿속에서 나온 행정안이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처사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머리는 충신인데 배가 너를 배신하는 구나~!”

건물과 건물사이

O...동막은 초만원!

요즘 학교내에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거나 공사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선다는데.

알아본즉, 상록원 옆에 자리잡은 강의동 건물과 그 뒤의 테니스장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이는 학생들의 복지와 여가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좁디좁은 캠퍼스에 건물만 난립시키는 격이니.

이에 답답한 교정을 바라보던 학우랄, “건물 옆에 건물, 건물 사이 건물..에~아리다가 동막이 미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기네

O...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시민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속속 내놓았는데. 주로 과거에 비리 경력이 있거나, 외정 활동을 계속한 의원들이 이 명단에 들어있다고. 특히, 이종 여러 시민단체 명단에서 빠져지 않는 몇몇 의원들도 있으니.

이에 낙선운동 현장 옆을 지나가던 한 의사의 왈 “야밤의 감초?!”

벤처를 향한 질주

O...“저 벤처로 뽕갈래요” 요즘은 벤처 열풍이 기업체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대단한 인기를 몰고 있다고.

초창기 우수한 기술은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해 갈 데대로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선택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실력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비상구(?)’가 됐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다들 벤처, 벤처, 벤처를 외치지만 벤처의 상당수가 벤취에 앉아있는 꼴이니 씁쓸하네요.”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ac.kr
부주간 심규박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18-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2000학년도 전과시행 안내

- 전과 대상학과(부) : 원칙상 계열제한없이 전학과(부)
- 제한사항
 -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과
 - 나. 캠퍼스간 전과
 - 다. 야간에서 주간학과 및 주간에서 야간학과로의 전과
 - 라.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자 (단, 체육특기자는 체육교육과로의 지원가능)
- 지원자격 : 1학년을 수료하고 총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포함) 3.0이상인 2000학년도 1학기 2학년 복학예정자
- 전과허용인원 : 전입받는 학부(과) 입학정원의 20%
- 전과신청 : 신청자 소속학과(부) 학업지도교수와 학장의 동의를 받아 전과희망 학부(과)의 소속 대학 교학과에 신청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가) 접수기간 : 2000. 2. 23(수) ~ 24(목)
 - 나) 면접전형 : 2000. 2. 28(월)(단과대별로 세부일정 추후공고함)
 - 다) 전과허가(확정·공고) : 2000. 3. 3(금)
- 구비서류
 - 가. 전과원서(소정양식)
 - 나. 자기소개 및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 전형료(예체능계열에 한함) : 일급삼만원정(W30,000)

휴학·복학·재입학원 접수안내(추가)

- 휴학원서(휴학연정원 포함) 접수기간 : 2000. 3. 2(목) ~ 3(금)
-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00. 2. 22(화) ~ 23(수)
 - * 재입학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 구비서류
 - 가. 일반휴학자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서(휴학연정원) 1부(보호자 도장지참)
 - 나.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전역자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 2) 전역예정자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복수전공 신청안내(추가)

- 일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2. 22(화) ~ 2000. 2. 23(수)
 - 나. 학정 공고 : 2000. 3. 6(월) 소속대학에서 공고함
- 복수전공시행 기본방안
 - 가. 선발인원 : 99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결정 잔여석
 - 나. 신청자격 : 2000학년도 3학년 1학기 진급자(복학, 재학 포함)중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99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탈락자 지원 가능. 단, 2학년 2학기 미이수자 3학년 편입생은 제외)
 - 다.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단, 잔여석이 있는 학과, 전공)
- 제한사항
 - ① 법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 ②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 ③ 비사범계열 학생은 교과이수자에 한하여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허가함
 - ④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신청일 작성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에 교과이수 및 졸업후 진로 등에 관하여 문의할 것
 - * 예체능계 학과(전공)지원자는 해당대학 교학과에 시험일시 및 관련사항을 문의할 것
- 수용정원 초과시 선발원칙
 - 가.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 나.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학과)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성적(F포함) 평점평균을 소수정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 졸업 및 논문
 - 가.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는 불가하고 제 1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한다
 - 나.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2전공 또는 제 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 다. 복수전공을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단, 학위등록 번호는 동일함)
 - 라.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 신청 절차
 - 가.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나.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한후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 다.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단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학과에 접수한다
 - 라.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는 원칙상 정정이 불가하기에 본인이 직접 접수전 최종확인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신고 대상
 - 가. 2000학년도 2학기 신입·편입·복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나. 일반 휴학후 복학하는 학생도 포함
- 신고 제외 대상
 - 가.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나. 복학과 동시 휴학하는 자
 - 다.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 (재학증명서를 직장 예비군 부대에 제출)
- 신고 기간 : 2000. 2. 21 ~ 3. 7
 - *신고 기간 이후 등록 예정자도 기간 내 신고
- 신고 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 (본관 2층)
- 신고시 지참물
 - 가. 증명사진 1부 (99년 7월 이후 전역자)
 - 나. 인장
 - 다. 복학 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제시
- 문의처 : 예비군 연대본부 (TEL 2260-3073~4)

예비군 연대

교무처

동약로

전략없는 싸움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을 저지한다.’ 지난 8일 온방골 시계탑 앞. 미리 약속을 한 듯한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대표자로 보이는 한 학생이 모습을 드러내고 곧이어 그의 발언이 이어졌다. “우리는 보다 민주적으로 학교측과 등록금 협상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 차례 요청을 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묵살하는 행위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불만을 안고 있는 듯한 대표자의 얼굴에는 학교측을 상대로 등록금 투쟁과 협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들의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듯 했다.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투쟁’을 외치는 그들은 온방골을 휩쓰는 차디찬 바람에도 개의치 않는다. 아무리 교정을 살펴봐도 원호관 입구로 교직원선생님의 희미한 모습이 눈에 비칠뿐 주위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일반학우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마치 20여명의 학생회 간부들이 마련한 조출한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더니 곧 이어 잔치는 종결이라도 맞은 듯 하나둘 모습을 감추는 간부들도 보인다. 특별히 결의대회를 위한전술 또한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은 듯 했다. 구호조차도 힘겨운 씨름을 한다. 장소를 이동해 학생복지실 앞. 직선 간부 몇몇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들은 등록금 투쟁을 위해 전체 8천학우를 대표하여 학교측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학우들에게 등투와 관련된 비대위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선전물 돌리기 작업이 한창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협의 타결을 갈망하는 적은 인원이 짧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힘겨운 결의대회는 말만 거창하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투쟁 전략은 보이질 않았다.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많은 준비가 없었다. 일반학우들도 잘 모른다. 왜 저러는 것인가. 단순히 저지 홍보만을 하는 일이 모두는 아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원의 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확실한 투쟁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미영 기자
candy@cakra.dongguk.ac.kr

“죽어서라도 평양에 가고 싶다”

김양무 부의장 방북치료 끝내 불허... 정부의 선별교류 정책이 가로막아

지난 13일 조국통일법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김양무 상임부의장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김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사건, 이북 큰물피해돕기 사업 등으로 4차례의 구속·육교를 겪으며 지난 98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99범민족 통일대추전 행사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두달 남짓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직장암 말기 판정으로 지난 10월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김씨의 신병을 지키려는 범민련 외에 여러 사회단체에서 북한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북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게다가 수배자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방일치로도 받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죽어서라도 평양에 가고싶다”는 유언을 남긴 채, 지난 1월 26일 새벽1시 고려대병원에서 운명하였다. 이후 유품이라도 평양에 보내드리자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통일원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로 지난 13일 장례를 치르게 됐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여러 차례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 각종 체육교류와 연예인 방문 등으로 온 국민이 통일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생각을 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



지난 1월 29일 고대 안암병원 영안실 앞에서 김양무 선생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을 이루려고 활동하는 사회 단체들은 이적단체들로 치부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 또는 수배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민간 통일 운동의 선별 교류방침은 그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김씨의 부인 양은찬씨의 ‘환환자가 교류하여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민족의 역사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묵살하는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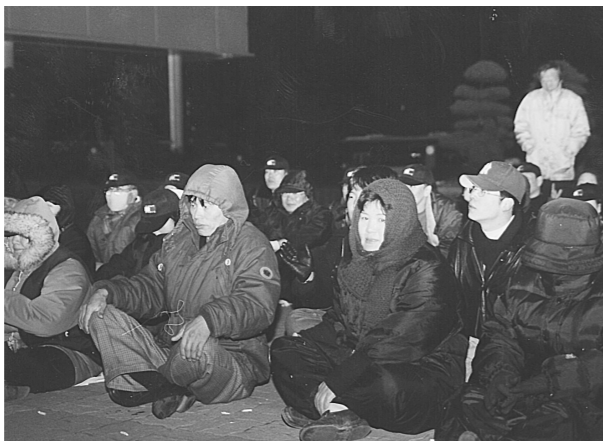
안타까울 뿐이다. 김씨의 유품이라도 북으로 보내려는 유가족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일 북측에서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의 간절한 조국 통일 의원을 저버릴 수 없다”며, 남편의 유품을 북으로 가져가 살아서 풀지 못한 한을 풀어주려는 양씨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영>

의왕시 내손동 철거민을 만나

“내게 남은 건 이불 한 장이 전부야”

부당한 행정당국에 맞선 난장이들의 외침



“추위가 대수냐” 지난 2월 9일 의왕시청 앞에서 내손동 철거민들이 연좌농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96%가 녹지대로 이루어진 녹색 의왕시. 그러나 의왕시 어느 곳에서도 초록빛은 찾을 수 없고 연일 흑한속의 겨울 바람만 불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에 거주하던 7세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오고갈 곳 없이 의왕시청 앞을 전전하며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사이 뜯기고 쫓겨난다. 다시 비닐천막을 치는 사람들. 그들은 유일한 재

산인 이불만 뒤집어쓴 채 잠시 눈을 붙인다. 새벽 2~3시경. 찬바람이나마 막아주던 비닐천막이 뜯겨나가고 세상은 온통 눈물과 아우성으로 소란스럽다. 이렇게 눈 한번 편히 감고 잠들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철거민들이다. 의왕시는 14만평 대지에 3,600세대를 형성하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사비용으로 22만원을 쥐어주고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철거민 이경옥(여·46, 무직)씨는 “이 추운데 어디로 가라고... 주변이 전부 신도시라 가난한 우리네들은 이사할 엄두도

잘못된 보도가 나라를 망친다

보수언론 기회주의적 여론 몰이

‘유례없는 선거혁명’,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낙선운동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보여주면서 기존 정치 기득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어김없이 ‘월권행위’나 ‘객관성이 없다’느니 하면서 흡집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우기 낙선·낙선운동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자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에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선거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기한 배후설을 여과없이 보도·강조하는 태도(1월 25일자 사설)로 선회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가수 이정현씨의 노래 ‘바퀴’ 작곡자 인터뷰 기사를 통해 교묘하게 총선연대를 공격하는 ‘노련함’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노래로 선포 말아야’, ‘대중음악 천시 가슴아파’ 등의 소재목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5단계 총선 음모설’(2월 3일자)에서 음모론을 재생산했다. 특히 ‘음모설의 진앙지로 추정되는 재야세력과 등이 달아있는 언론매체들이 음모론은 없다고 떠들고 조급이라도 의심하면 모두 반개혁수구세력으로 돌아붙이는 여론조작까지 벌이고 있어 여론의 음모공작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며 음모론에 대한 비판언론까지 ‘음모론의 공범’으로 몰아가는 과립치한 태도를 보였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혼란한 양상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그 원인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도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너도나도 선거에 개입하면’이라는 사설(2월 2일자)을 통해 각종 단체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뒤 ‘시민단체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앙일보는 ‘총선은 제대로 치를지’(2월 2일자)라며 선거와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결국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태도까지 연일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평가다. 한국일보의 ‘지역정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 ‘지역당 구도가 이번에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등으로 지역감정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역감정에 근거한 정치적 해석’으로 몰아세웠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권의 반응과 파장을 중심으로 다루거나 축소보도하는 태도도 역력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달밤에 길을 가다가 미친 개 짖는 소리를 듣는 기분’, ‘준법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건방진 짓거리를 하고 있다’(‘시민단체가 헌법기관이냐’)등 정권의 저질반응을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부적격 2탄’, ‘날새운 역공’ 등 선정적 용어들이 난무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신문모니터팀에서는 비교적 신중하고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를 선정했다. 음모론을 부추기는 등 낙선·낙선운동에 대해 왜곡, 폄하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비판하고 1차 명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2차 명단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내용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실었던 한겨레, 기자칼럼을 통해 특종경쟁을 비판한 대한매일, 외부필자 칼럼을 통해 ‘정치권이 자신있게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는 것도 결국 배후는 언론’이라며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향신문 모두 언론 스스로 자기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사로 선정됐다.

이번 시민단체의 낙선·낙선운동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알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왜곡, 폄하, 축소, 편파보도로 일관하는 보수언론의 행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결코 막지는 못할 것이다. 동대신문모니터팀

안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9일 의왕시청 앞 비닐천막철거 중 그 안에서 새우잠을 자던 여자 2명은 머리와 허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하지만 입원비 문제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분노한 철거민들은 시청 측에 치료비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남경남, 이하 전철연)을 주축으로 △상암동 △안양개미마을 △관선4지구 △봉천3동 등지에서 철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전철연이 요구하는 것은 가수용단지 조성과 실정에 맞는 영구 임대주택 건립의 보장이다. 최근 부당한 철거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이차림 활발한 가운데, 신생 철거지역 철거민들에게 철거 투쟁의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청량 1동 사람들, 일방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싸운지 9년. 그들은 결국 임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싸우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철거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이웃주민인 철거민의 언 발을 녹여줄 동지는 어디란 말인가? <윤>

영어 공용화의 허와 실

성급한 경제논리보다 장기적인 교육 정책 우선돼야

지난 해 북거일이라는 소설가가 꼭 소 설같은 얘기를 하여 '영어 공용화'는 평 지평과 일으켰다. 영어를 공용어로 써야 만 경제발전이 되고, 국제화가 된다는 것 이다. 인터넷 시대에 영어를 모르면 정보 화가 될 수 없고, 세계화에 뒤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영어 공용 화의 요체다.

국어로 되어있다. 캐나다나 법적으로 모든 글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표기하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과 경비가 배로 들어 가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때 문에 캐나다의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으로 국론이 갈라지고 이것이 퀘벡주가 캐나다 에서 독립하겠다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필리핀의 최고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에스ตรา다 필리핀 대통 령이 1988년 8월 4일에 "나는 앞으로 외국 인사들과 대화할 때에 영어 대신에 필리 핀 언어인 타갈로그어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최 기 호 상명대 국어교육과 교수

영어가 공용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영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의 언어 장벽에서 오는 분열 현상이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파우스테는 '외래어를 써서는 안된다. 외래어를 지나치게 쓰면 외래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갈 라지고 마침내 국론이 분열된다'고 하였 다. 음미해 볼 대목이다.

사설

'등록금 책정 자율화 정책'의 의미

교육부가 지난 6일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대학 정원·등록금 자율화 방침은 등록금 인상으로 슬렁거리는 요즘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보다 많아지는 오는 2003년부터 정원 미달 등에 따른 대학 재정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각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본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실공히 상위권 대학으로 발돋움 하고자 일산 제3캠퍼스 건설, 불교종합병원 건립, 제2도서관 신축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 근에 보기 힘든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다.

프로야구 선수협의 파문

“야구 선수도 노동자다”

선수 권의 보장 위해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프로야구 선수하면 우선 화려함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불거져 나온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끝자락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돈 그 정도 받고 야구하면 됐지, 왜 지꾸 문제를 일으키느냐"며 오히려 선수협을 꾸 리려고 하는 선수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국내 프로야구 구단들은 선수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다분 하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많은 나이와 부상 그리고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방출되 고 웃을 벗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 있다. 하지만 KBO와 각 구단들은 미국 이나 일본에 비해 국내 프로야구의 역사가 짧다는 것을 이유로 아직 시기상조라 는 말만 되풀이하며 선수협 구성을 극구 반대하며 선수협에 가입하는 선수는 경기 에 출전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불할 수 없 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받고 있는 스포츠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프로야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만 화려 하고 속은 곰아간다면 국민들의 사랑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등투보다 앞선 과제

새천년이 시작되지 어느덧 2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우 수 신입생 유치 전략과 그를 대학이 보여주는 자체적인 변화들은 상승하여 실 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학에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으 니, 해가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등록금 협의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등록금, 국 고보조금, 재단 전입금, 기부금 등 학교 당국의 예산집행에 학생들이 극도의 관 심을 보이며 그 집행에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학생이 학교측의 예산집행에 개입한다는 말은 학문적 성향을 갖고 닦은 학자나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병무청공고 제 1호

2000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2000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 1981년1월1일부터 1981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198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참고사항
○ 개인별 징병검사일차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병무사무소)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고, 통지서와 함께 보내드리는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징병상태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한 협의한 후 작성하여 징병검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여비는 우편대체증서로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당일 지급합니다.

2. 병역처분기준(학력별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Table with columns for 학력 (Education) and 신체등위 (Physical Classification) from 1급 to 7급. It details the military service status for different education levels and physical fitness grades.

※ 5·6급 판정대상자는 징병관, 징병담당자, 가정의, 시·군·구의 장 추천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3.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이 되는 사유

Table with columns for 보충역 대상 (Supplementary Service Object) and 제 2국민역 대상 (2nd National Service Object). It lists specific conditions for being classified into these categories.

4.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 안내

- 징병검사 연기
· 질병, 전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지방행정관서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를 원할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 산업기능요원 편입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8개월간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직원, 경비, 감시, 보호,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 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보충역중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력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분야에 28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보충역 복무 희망원서(서식은 징병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을 표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세 입영희망
·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면 군의 소소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연
·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재학연령(전문대학:22세, 대학:24세, 대학원:26세)까지 별도 출원없이 학적부유자 명부에 의거 입영이 연기됩니다.
· 대학 재학생으로서 전역과 동시 복학을 위하여 학년말(12월에서 2월초) 또는 학기말(6월에서 8월초)에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서에 입영 희망시기를 월별로 기재하여 10월말까지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사무소)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다음해의 입영계획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5.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6. 유의사항
○ 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등위 등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작용에 의하여 인력으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간혹 외관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 등 수치성질환과 수형, 지력력 등 신분상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마치 청탁이나 정실에 의하여 면제된 양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만약 어떠한 작용에 의하여 면제시킬 수 있는 양 고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즉시 아래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된 후 같은 지방병무청(병무사무소)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이미 발부된 징병검사 통지서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지방병무청(병무사무소)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신주소지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사무소)에 징병검사 통지서를 반납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9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 명단



박사학위 (총72명)

철학 (4명)

△당아미=원칙의 해설밀경유 연구 ▲60년생 ▲본교 불교대 졸
 △주보연=대일경의 식실설과 그 실천 연구 ▲59년생 ▲본교 불교학과 졸 ▲88년~현재 진선여고 교사
 △양승규='현관잡업론(Abhisamayalamkara)'의 삼중지 연구-제약체(rJe yabstras)의 주석을 중심으로 ▲64년생 ▲본교 불교학과 졸 ▲96년~현재 본교 강사
 △이대성=유마경 연구 ▲45년생 ▲본교 불교학과 졸 ▲82년~현재 서울 대신고 영어교사

문학 (8명)

△김기주=최인훈 소설 연구 ▲59년생 ▲본교 국문학과 졸 ▲88~인연외고 교사
 △김인호=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제성 연구 ▲57년생 ▲본교 국문과 졸 ▲98~현재 경기대 강사
 △조선영=가사문학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그 표현미학 연구-사대부가사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62년생 ▲동덕여대 국문과 졸 ▲97년~현재 본교 강사
 △권영도=영어 동사성 관용어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비합성성과 비성분성을 중심으로 ▲57년생 ▲성균관대 영문과 졸 ▲98년~현재 본교 강사
 △김광재=한국관광복권의 활동 연구-미 전략정보국(OSS)과의 합작훈련을 중심으로 ▲65년생 ▲본교 사학과 졸 ▲94년~

현재 본교 강사

△곽동해=한·중·일 종의 조형양식 연구 ▲59년생 ▲본교 미술학과 졸 ▲96년~현재 본교 강사
 △이흥재=한국 문화재 사진 복제에 관한 연구 ▲54년생 ▲전북대 영문과 졸 ▲99년~현재 우석대 겸임교수
 △김수남=해방전 한국 사실주의 시나리오작법 고찰 ▲50년생 ▲중앙대 연영과 졸 ▲현재 청주대 교수

교육학 (2명)

△이일주=한국 유아교육-일원화체제 모형 탐색 ▲54년생 ▲공주사범대 교육학과 졸 ▲82년~현재 공주전문대 교수
 △강신임=정보화사회의 문화현상과 교육과정의 과제 ▲63년생 ▲삼명여대 교육학과 졸 ▲98년~현재 상명대 강사

법학 (5명)

△조평열=상속재산의 법적규율과 상속세제에 관한 연구 ▲47년생 ▲방송대 법학과 졸 ▲73년~현재 변호사 강인에 법률사무소 사무장
 △노호래=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68년생 ▲본교 경찰행정학과 졸 ▲97년~현재 서남대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허경미=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64년생 ▲본교 경찰행정학과 졸 ▲97년~현재 경찰대학

교 교수부 근무

△안창훈=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54년생 ▲국제대학 일문과 졸 ▲98년~현재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 근무
 △김상규=폭력범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귀인 및 분노특성을 중심으로 ▲61년생 ▲창원대학교 법학과 졸 ▲현재 육군 3사관학교 교수

정치학 (4명)

△이정규=한국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34년생 ▲본교 정치학과 졸 ▲84년~현재 전주대 지역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이남석=기술,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66년생 ▲본교 정의과 졸 ▲95년~현재 본교 강사
 △공덕수=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시기별 실태와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47년생 ▲연세대 정의과 졸
 △김광용=한국지방정치 발전에 관한 연구-법제도, 선거형태, 정책집행권력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65년생 ▲본교 철학과 졸 ▲99년~현재 본교 강사

행정학 (6명)

△김수승=청소년여가와 비행의 상관관계 및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48년생 ▲본교 경영학과 졸 ▲99년~현재 상지영서대학 강사
 △임병연=지방정부의 재정력 평가에 관한 연구-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66년생 ▲본교 행정학과 졸 ▲97년~본교 강사

△김연중=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독일사례의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56년생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졸 ▲97~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손경희=지방의회의 정책추진력에 관한 연구-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68년생 ▲본교 법학과 졸 ▲96년~현재 경북의회사무처 근무
 △장인봉=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재정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68년생 ▲본교 행정학과 졸 ▲99년~현재 본교 강사
 △홍광표=학습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연구-기능대학의 실업자 취업 훈련을 중심으로 ▲43년생 ▲한양대 전기공학과 졸 ▲98년~현재 기독교상담개발연구소 소장

경영학 (3명)

△채연수=교육 서비스품질의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53년생 ▲본교 경영학과 졸 ▲85년~현재 본교 강사
 △이강호=외국인직접투자 소유자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유럽 다국적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51년생 ▲육군사관학교 졸 ▲90년~현재 한국그린존스 펌프(주) 대표이사장
 △차도현=조직몰입, CEO의 추진의지,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지식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53년생 ▲본교 철학과 졸 ▲99년~현재 나래시큐리티 영업본부장

경제학 (2명)

△이내수=시설채소농가의 투자수익성에 관한 연구 ▲39년생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졸 ▲98년~현재 농협중앙회 부회장
 △함병은=수요자선호도 분석을 통한 관광농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59년생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졸 ▲98년~월간 양돈진흥 주간
 △박미진=초고집적 회로 배선용 구리박막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67년생 ▲본교 물리학과 졸 ▲96년~현재 세명대학교 강사
 △권영해=금속열화학증착법에 의해 실리콘에 성장된 변형 실리콘 저메인의 결합에 관한 연구 ▲65년생 ▲본교 물리학과 졸 ▲96년~삼척대 강사
 △남기성=최적 실험계획의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62년생 ▲본교 통계학과 졸 ▲99년~현재 경남대·창원대 강사
 △박종구=음이항분포를 가진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48년생 ▲본교 농학과 졸 ▲81년~현재 원광대 근무
 △이기삼=천적공존의 다중적 인공역이 개발과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63년생 ▲본교 응생과 졸

이학 (5명)

△박미진=도시 오염지역 고층주거의 실내공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56년생 ▲본교 건축공학과 졸 ▲97년~현재 시립 인천전문대학 교수
 △김중승=수용성 모형계에서 콜레스테롤의 광산화에 미치는 인자의 영향 ▲56년생 ▲본교 식품공학과 졸 ▲99년~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무
 △김태건=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위험태도 분석 및 효용함수의 도출 ▲66년생 ▲본교 산업공학과 졸 ▲99년~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무
 △정지안=다기준의사결정의 가치중도출방법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의 개 ▲62년생 ▲본교 산업공학과 졸 ▲99년~현재 신성대 조교수
 △김호진=개인용 컴퓨터 기반에서 데이터 복제기법 적용을 통한 정보유통 개선 방안 연구-지상전술 C41 시범체계 중심으로 ▲48년생 ▲성균관대 경영학대 졸 ▲97년~현재 육군 C41개발단 기반체계처장

농학 (2명)

△김완석=보리 재배기간의 기상조건에 따른 수량구성요소와 수량의 변동 ▲56년생 ▲본교 농학과 졸 ▲88년~현재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
 △유신재=교주와 유전자열에 의한 목질 보드의 물성개선에 관한 연구 ▲64년생

▲본교 입학과 졸

공학 (8명)

△백라준=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새로운 멀티 빔 스위칭 안테나 시스템의 구현 ▲62년생 ▲본교 전자공학과 졸 ▲90년~현재 (주)에이스 테크놀로지 중앙연구소 재직
 △박영호=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상호 간접 인증에 의한 전자 결제 시스템 설계 ▲60년생 ▲본교 전자계산학과 졸 ▲92년~부천대학 부교수
 △이수민=해인사 장경각의 건축환경 ▲63년생 ▲본교 건축공학과 졸 ▲93년~현재 경민대학 근무
 △박미진=도시 오염지역 고층주거의 실내공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56년생 ▲본교 건축공학과 졸 ▲97년~현재 시립 인천전문대학 교수
 △김중승=수용성 모형계에서 콜레스테롤의 광산화에 미치는 인자의 영향 ▲56년생 ▲본교 식품공학과 졸 ▲99년~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무
 △김태건=의사결정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위험태도 분석 및 효용함수의 도출 ▲66년생 ▲본교 산업공학과 졸 ▲99년~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무
 △정지안=다기준의사결정의 가치중도출방법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의 개 ▲62년생 ▲본교 산업공학과 졸 ▲99년~현재 신성대 조교수
 △김호진=개인용 컴퓨터 기반에서 데이터 복제기법 적용을 통한 정보유통 개선 방안 연구-지상전술 C41 시범체계 중심으로 ▲48년생 ▲성균관대 경영학대 졸 ▲97년~현재 육군 C41개발단 기반체계처장

가정학 (1명)

△김양순=자폐성 장애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표현예술치료의 효과 ▲48년생 ▲제주대 농가정학과 졸 ▲90년~현재 제주대 교수

한의학 (16명)

△김영기=담귀 약침액이 압에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 ▲67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7년~현재 도제 한의원 원장
△박경미=갑초 약침액의 항암 및 면역활성에 미치는 영향 ▲68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한나라 한의원 원장
△김유주=황연 추출물의 항산화능 및 아질산염 소거능에 관한 연구 ▲64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99년~현재 목동 한마음한의원 원장

△홍천표=방풍당귀음이 중대뇌동맥 폐쇄 후 재관류 모델에 미치는 영향 ▲58년생 ▲경희대 한의과대 졸
△김근우=L-NAME으로 유발된 학습·기억장애와 뇌허혈 손상에 관한 대조환의 효과 ▲68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8년~현재 우신항 한방병원 근무

△오하석=부위별 녹용이 흑색종 유발생쥐의 종양억제와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67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유원근=이침요법이 운동선수 체중조절시 에너지 대사 및 호르몬 변화에 미치는 영향 ▲68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8~현재 한방병원 근무

△임재연=A Study on Bone Resorption & Osteoporosis by Honghwaain-Jahage extracts ▲69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서영철=성형장기간이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기저동맥 및 뇌조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67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정경연=우황,웅담,사향 복합제제 약침지국이 LPS 유발 관절염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68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정경연한의원 원장

△강형정=A Study on Bone Resorption & Osteoporosis by yukmi-jihwang-tang-Jahage extracts ▲70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동원한의원 원장

△최은정=Mongolian Gerbil의 Reversible forebrain ischemia 모델에 미치는 보양환오탕의 효과 ▲70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8~현재 인천 안병상 한의원 근무

△황영근=Effect of Salviae Radix extract on mercury-induced impairment of renal function in rabbits ▲64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9년~현재 울산 삼상한의원 원장
△김정철=A Study on Bone Resorption & Osteoporosis by Yukmi-Jihwang-tang-Carthusus tinctorius L. extracts ▲69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도원석=유백피, 계지, 우슬, 붓독 및 우황, 웅담, 사향 복합제제 약침이 mouse의 LPS유발 관절염의 혈액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67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99년~한서대 한방병원 재직
△이우현="Effects of Bombusae concretio Salicea on amyloid-β-induced neuronal cell toxicity, lipid peroxidation and antioxidative enzymes in rat neuronal astrocytes" ▲62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업 ▲94년~현재 양산 한의원 원장

의학 (6명)

△임명아=진폐판독 정도관리에 따른 진폐소견의 판독 정확도 변화 ▲57년생 ▲경희대 의학과 졸 ▲92년~한동대 선린병원 방사선과 과장

△하창원=백서뇌에서 망간에 의한 기저핵 신경세포의 자멸사에 관한 병리학적 연구 ▲63년생 ▲97~현재 한라병원 해부병리과장

△박신병=생쥐 중대뇌동맥의 일과성 폐쇄에 의한 국소적 뇌허혈에서 videomicroscopy 영상 소견 ▲62년생 ▲영남대 의학과 졸 ▲95~현재 김천 남산신경외과 원장

△강명수=실험적으로 유발된 흰쥐 유방종양에서 G1 세포주기와 관련된 cyclins 및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의 발현 ▲55년생 ▲경북대 의학과 졸 ▲91~현재 강외과의원 원장

△김병천=Internal Transcribed Spacer 1 부위 및 Chitin Synthase 1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피부사상균의 계통발생 및 분류 ▲60년생 ▲경북대 의대 졸 ▲98~계명대 조교수

△박재홍=실험적으로 유발된 흰쥐 유방종양에서 tamoxifen 투여가 G1 세포주기와 관련된 cyclins 및 cyclin dependent Kinase inhibitors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의 학박사 박사과정 ▲60년생 ▲중앙대 의학과 졸 ▲99년~포항 북부정형외과 원장

으로
△이현미=한국 영화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연구
△맹수진=1990년대 한국 호러 장르의 경향 연구

△정윤석=단편 영화 '원손잡이' 제작에 관한 연구
△박희성=무협영화에 나타난 중국 전통 사상과 영화미학의 관계
△김유리=관객성 연구·웃 바귀입기(Crossdressing)를 중심으로
△목혜정=영화사 서술방식으로서의 다큐멘터리-그 의의와 양식에 대한 연구

△이은경=일본 독립영화의 배급시스템 연구-미니세터 단관계 공개형태를 중심으로
△임세은=현대 영화에서의 일상적 인물에 대한 연구-일상적 인물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권영준=메이에르홀드의 생체역학후련과 노(能)의 신체후련을 통한 배우활용 방법의 특성 비교연구

△정유정=방송산업과 영화산업의 공조방안 연구-방송사의 영화제작 참여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명자=로미오 영화의 형상화 방법으로서 풍자 연구-'넵버' '엑스트라' '간절리 철진'을 중심으로
△김민정=운주사 불상을 제재로 한 본인작품의 해석
△이희조=역동적 수행평가의 방향과 실천가능성

△김경숙=초등학교 교사-학생 상호작용에서의 범주화 특성
△박진철=평등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심영일=스톡홀름선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박성애=형사절차상 DNA감정-DNA감정의견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중심으로

△강현석=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연구-행정심판법제9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재국=남·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면위원회 활동 연구
△조양호=국민의 정부 대부정책 연구-대북 포용정책을 중심으로
△김정수=대의통상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함혜연=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권창국=형사절차상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재형=Network Security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덕영=한국 경찰활동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혜영=성격유형과 범죄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청소년범죄자를 중심으로
△김진용=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구조-직업다리 역할 가설을 중심으로
△정혜연=일탈소년들의 재사회화 적응과정-서울 근교 소년원 현장 연구
△최경원=탈법전기 북한의 안전보장 정책에 관한 연구-안보관의 확대와 핵·미사일 문제

△김남영=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강원구=네트워크 외부효과 측정-휴대용 전화기 시장을 중심으로
△박종영=인적자본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최규철=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에 관한 연구-정보통신관련산업을 중심으로

△이성이=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박재호=기술혁신이 노동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제조업 14개 산업을 중심으로
△정우수=광고와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 간 상호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연립방정식 모형과 VAR모형을 중심으로

△김길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논리에 관한 연구-계열사간 자금·자산내부거래를 중심으로
△김재원=전략 그리드 모형을 이용한 BPR 성과에 관한 연구
△송철호=T관련기업의 ERP 요소별 시스템 성과에 관한 연구

△이승현=가격제한폭 확대가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권도영=조작간 정보시스템(IOS) 사용 패턴과 기술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재형=한의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한방 병원 이용 고객 중심으로

△정미화=기업의 정보시스템 품질에 대한 성과 측정 연구-금융/정보통신업 중심으로
△김희문=KOSPI200 주가지수선물 도입이 현물 주식시장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김현근=서비스만족과 재구매의도사

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김재현=IT아웃소싱 공급사 제공요소에 따른 성과에 관한 연구-산업별/외주방식/외주기간 중심으로
△신의철=영화 속 제품배치에 관한 연구-배치유형에 의한 상표인지, 상표효상, 상표태도 차이를 중심으로
△이성호=기업광고의 유형이 광고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국 마사히 광고물을 중심으로

△박상호=원산지 호감도와 상표이미지가 제품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미국산 가방제품을 중심으로
△이휘복=연봉제 도입이 구성원의 직무몰입도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통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차승욱=고객 관점에서 본 영업사원의 열심히 일함(Working hard)과 재치 있게 일함(Working smart)의 지향성에 관한 연구.

△박철영=한국PC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심재병=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이현숙=미,일 자동차협상의 진행과정과 협상력 결정요인
△김순호=한국 수출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정지호=국내 및 외국계 할인점의 마케팅믹스 활용에 관한 연구-국내 대형할인점의 소비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편무현=기업특성요인과 조세혜택에 관한 실증연구
△류난희=정보시스템 성장 단계별 감사활동에 관한 연구

△김정호=강화도 마나산 참성단의 기원 △고광삼=서울시의 수계변화-1910~1999년
△문종엽=P-type 6H-SiC의 Ohmic 접합 연구
△박찬진=InAs 양자점과 양자우물의 전기·광학적 특성

△김남화=광전도에 의한 GaN의 깊은 준위에 관한 연구
△양석진=MOCVD로 성장한 p-type GaN의 오믹 특성 연구
△강철기=Sulfur 처리된 Undoped CdTe(100)의 표면상태 연구
△김희연=ICP-RIE를 이용한 전력소자 및 TFT-LCD용 물질의 건식식각

△정운형=열자극 전류에 의한 GaN의 깊은 준위 결합 상태에 관한 연구
△이창명=p-type GaN의 표면처리에 따른 전기-광학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양태현=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nitroprusside 분말들의 Mossbauer효과 연구

△조영섭=Siloxane-Urethane 공중합체의 합성과 물성에 관한 연구
△안병천=비소(V) 흡입된 이산화납 전극의 산소 전이 반응에 대한 전극 촉매반응
△박호일=소간 중의 Mitochondrial Na+/K+ F1-ATPase 활성화에 대한 인산배당체의 효과

△남병두=Electrochemical Synthesis and Behaviors of Copolymer between Polypyrrole and Poly(N-methylpyrrole)by Electrogravimetric and Impedance Techniques
△박정욱=EM 알고리즘에 의한 다변량 혼합정규분포하의 분류방법
△장용석=비정규성을 가진 공정에 있어서 공정능력지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보은=교차타당성방법을 이용한 선형모형의 로버스트 예측우차에 대한 연구
△이현남=몬테칼로 김스방법을 적용한 중도절단 혼합 고장 신뢰도 모형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에 관한 연구
△서영성=반복된 확률화응답모형에서 독립성 검정과 신뢰할 수 있는 응답에 대한 검정통계량들의 검정력에 관한 연구

△문재준=저전력 A/D 변환기의 설계
△이동익=동적 자기 바이어스를 이용한 온도 보상 저잡음 증폭기 설계
△이정은=폴딩 및 인터플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고속 A/D 변환기의 설계
△황의순=기판의 결합성분을 포함한 초고주파 CMOS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모델링

△김동현=LED Array를 이용한 Micro Display와 Gray Scale Image구현에 관한 연구
△이영철=CMOS와 Pass-Transistor Logic를 이용한 고성능 곱셈기 설계에 관한 연구
△이세준=DC Magnetron sputtering deposition 법에 의한 titanium silicide의 형성 과 특성 연구

△성준경=한국에 있어서 Sustainable Development와 산지이용에 관한 연구
△모양원=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 Pattern 분석 및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을 중심으로
△신상진=감자근연종을 이용한 감자의 세균성 무름병 저항성 육종에 관한 연구
△이현주=adenoviral vector를 이용한 사

람 수지상 세포내 외부 유전자 도입에 관한 연구

△반기원=Artificial culture of some entomopathogenic fungi and their biological activity
△김진미=한국인 여성 중 양성 또는 양성 유방 종양 조직에서 FISH에 의한 염색체의 이수성 판독
△이형주=Curcumin의 여러 암 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과 HeLa cell의 apoptosis 유도에 관한 연구

△이연복=ATP와 NAD+가 6-aminonicotinamide를 투여한 메추리 조직중의 수용성 단백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장병현=한국전통사찰에 나타나는 화계의 형식에 관한 연구
△박효연=우리나라 테마파크의 개발사례 연구-아뮤즈먼트 파크를 중심으로
△김창훈=DSP를 이용한 터보 부호의 구현

△이성태=X-band용 MMIC 전력증폭기에 대한 연구
△이승현=ATLAS를 이용한 PHEMT 특성의 시뮬레이션
△이인재=퍼지규칙을 이용한 신경회로망의 최적구성
△이제민=튤니구조의 Edge 결합 대역통과 필터 설계
△김민수=odma 2000 규정을 만족하는 터보 부호의 검증

△안광호=웨이브렛 패킷을 이용한 고음질 오디오 부호화
△박기상=이중 주파수용 평면구조 역 F 형 안테나의 구현
△박학열=GaAs FET를 이용한 2 GHz대 평형형 발진기의 설계
△김상구=쌍선형 등각 사상을 이용한 머리전달함수의 근사화

△권성훈=직교함수를 은닉층에 지닌 신경회로망에 대한 연구
△이태화=차세대 이동통신에 적합한 터보 등화기에 관한 연구
△김재홍=마이크로스트림 개방 루프 대역통과 필터의 대역폭 개선
△김경수=자기 제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자동 동조 PID 제어 방식

△이동준=AlGaAs/InGaAs/GaAs PHEMT의 도핑 층 설계에 따른 특성 변화
△정경원=변형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방식
△이형욱=웨이브렛 변환 영역에서 심리 음향모형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크 설계.
△이준=광 기록 시스템에서 터보 코드와 터보 등화기를 연접한 데이터 보호 방법

△안단=Q-matching을 이용한 L-band용 광대역 저잡음 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방성일=MPEG 압축 영역에서의 비디오 편집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및 시각 특수 효과의 구현.
△김대진=인간시각특성을 이용한 디지털 워터마크와 객체기반의 디지털 영상에 대한 저작권보호

△김동신=XML 문서의 접근 권한 관리
△조창오=코드 변환을 위한 통합 분석 도구
△박수=작업생명정보를 고려한 부하균등정책
△김진곤=다중 감지센서를 이용한 차량 추적 시스템

△순원성=XML 기반 리듬 편집 및 재생 시스템 개발
△최종완=XML을 이용한 UML모델 정보의 저장 및 공유
△김영환=Host-based Random Early Detection Algorithm.
△백갑천=IP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IEEE1394 게이트웨이

△이재각=서블릿을 이용한 트레이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경순=분산 연성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종료시한 할당 기법
△박재준=그룹 통신을 이용한 서버리스 응용 프로그램의 구현
△고재정=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 설계

△김일부호=자바에서 프로파일에 기초한 세대별 가비지 콜렉션
△남중재=통합 파일 시스템에서의 2단계 디스크 스케줄러 설계
△최석민=전자 상거래에서의 협동적 상품 추천 시스템의 구현
△남현순=CORBA 이벤트 서비스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스트림 관리

△이창우=링 기반 그룹 통신 프로토콜을 위한 효율적인 토큰관리
△진병정=A Similarity Wave View:이미지 질의 결과 시각화 방안
△유태명=링크 빈도와 클릭 빈도를 이용하는 메타 검색엔진의 설계
△조태연=일괄방람이 다양한 영상으로부터 얼굴 특징 요소의 추출

△김찬섭=시간 관계성을 고려한 정적

이미지의 시간 정보 표현 방안

△백운천=분산 스페어 디스크를 이용한 RAID 패리티 디플러스터링 방법
△김중재=3계층 패키지 구조와 매트릭스를 이용한 객체 클러스터링 기법
△이창환=자바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의 설계 및 구현
△이용호=분산 시스템에서 고장 감내성의 향상을 위한 적응형 체크포인팅 프로토콜

△이종영=CORBA를 이용한 고장감내(Fault-tolerant) 웹 기반 미들웨어 서버의 설계 및 구현
△지형근=대역 스크램블을 이용한 음성 보호방식
△김대연=SiH₄+ Ar 혼합기체의 전자군 파라미터 해석

△권혁인=양측 여자방식 MM-LDM의 추력산정 및 속도제어기 구성
△신훈호=서지 전류에 의한 접지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 및 접지저항 비교
△정성훈=개선된 ESPRIT 알고리즘을 이용한 퍼진신호의 신호도차방향 추정
△박기준=7차 진동모드 해석에 의한 초음파 모터의 설계 및 시차에 관한 연구

△송상환=정류모드에서 기합을 이용한 플라이백 컨버터의 설계 및 안정도 향상
△김현수=디지털 PI 제어를 이용한 BLDC 모터의 속도제어기 구성 및 동특성 개선

△전희철=액티브 블래프 기법을 이용한 ZVS-PWM 직렬 공진형 컨버터의 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
△이원재=단일 전력단으로 구성된 PFC AC-DC 하프브리지 컨버터의 설계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

△송현용=절도와 고화재의 확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현욱=철근 콘크리트 쌍곡병각담의 설계 및 해석
△박정훈=강상자형의 전단지연 변이현상에 관한 연구
△김영진=강합성상자형교의 운하중 횡분배에 관한 연구

△류종현=압축관 증방향 보강재의 최적강성에 관한 연구
△최영일=하부 피압이 존재하는 해상정성토의 압밀거동 특성
△김현기=강상자형교량에서 발생하는 뒤물림응력에 관한 연구
△김요성=운하중에 의한 합성강상자형상부 플랜지의 2차 응력

△조홍진=철근콘크리트 판형과 쉘의 휨과 막력을 고려한 설계
△신이숙=역극 전기 투석법에 의한 해수의 담수 효율에 관한 연구
△김병진=철근콘크리트 셀구조물의 극한거동에 대한 인장강성 효과

△배정호=지하수를 고려한 터널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연구
△이종호=연약지반 위에 포설된 고화차수재의 음력-변형 특성에 관한 연구
△정용진=신뢰성 기법을 이용한 서해안 해상점토의 잔류점하와 압밀시간의 해석
△박정원=탄소섬유시트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보강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전용준=탄소섬유 시트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내력 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육원=안전진단 업무프로세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이동철=박판재의 냉간성형이 압축내력에 미치는 영향평가

△권오성=고층 건축물의 풍하중에 의한 동적특성 및 사용성 평가
△김대희=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도별 분포특성-서울시 광진구 능동을 중심으로
△이동욱=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송파구 신천과 방이동을 중심으로

△배경철=방향족 추출 증류 공정 설계에 대한 연구
△정일배=불확실 인자를 고려한 회분식 공정의 최적 운용방안
△김경호=VOC 처리용 Biofilter를 위한 Filter Media들의 성능 비교

△김성표=폴라젠 젤 비드를 이용한 간세포 구상체의 고정화 기술 개발
△한형용=타이타니아-실리카 복합 에어로겔의 형성 및 물적 특성 규명
△이태주=에너지 절감을 위한 회분식 증류공정 운용의 최적화 모델개발

△손원일=Poly(etherimide)중공사막 제조에서의 첨가제 효과에 관한 연구
△서지원=계면활성제 첨가에 따른 미생물 석유 탈황반응 촉진에 관한 연구
△이덕형=정유공정의 운전조건을 통한 제품 및 원료의 성상에측에 관한 연구

△서영린=다공성 콜라겐기질의 기계적 물성조절과 이를 이용한 인공피부의 개발
△김진구=폴리카보실란 전구체를 이용한 실리코카바이드 복합재료의 제조에 관

석사학위 (총493명)

일반대학원 (293명)

△문해숙=길장의 법화경관 연구
△김유영=고려시대 지장신앙 연구
△이경준=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
△정경순=승만경의 일승 여래장사상 연구

△장미란=공사상의 격의적 이해에 관한 연구
△김철=연기론과 자유의지에 의한 수행에 대한 연구

△한지연=중국 초기역경사 연구-'양고승전'을 중심으로
△이지중=초기유식의 아리아식관 연구-진제역의 '쇄대승론식'을 중심으로

△박성철=가상공간의 INTERNET에 대한 불교적 이해-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중심으로
△박영희=능엄경의 마경 연구
△정재일=고려시대 천구의 연구
△정광관=사상후정의 선경관 연구

△김숙현='선요'의 체제와 선사상 연구
△김진일='능가사자기'의 성립에 관한 연구
△이창희=Brahmodya의 제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강종원='중송'에 나타난 성언담(Agama)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홍부용=송육 시 연구
△한득재=대화의 원리와 문답표현에 대하여

△유은경=조사 '-이/가', '-을/를', '-의'에 대한 연구
△이용훈=신경향파소설연구-주체의 형성과 그 이념에 대해서

△이유정=현대시에 나타난 선시적 성격 연구-황동규 후기시를 중심으로
△하성란=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박소은=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시·풍간 형식을 통한 인물형상화의 방법을 중심으로
△조정자=베케트와 카프카의 작품에 나

타난 인물과 글쓰기 연구

△박병욱='언어'를 통한 괴물의 자기인식-Mary Shelley의 Frankenstein

△정은길=문학재현에 있어서의 생산론 연구-Terry Eagleton을 중심으로
△김수경=수화능력시험(영어) 6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상관성 분석

△김혜선=Pinter 극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메타포-초.중기극을 중심으로
△정은주=Virginia Woolf의 대안적 세계-To the Lighthouse의 여성적 인물을 중심으로

△최혜진=참여성(REAL WOMAN)을 향한 전복적인 전라들-The Debutante Ball과 Crimes of the Heart를 중심으로
△오오즈모요코=현대일본어의 언어 사용에서 젠더의 관여

△김영희=상대 모음교체 현상에 관하여-명사적 어간에 나타나는 모음교체를 중심으로
△양민호=외국인이 갖는 일본어 이미지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한국·미국 대학생들 중심으로

△곽선희=허란살현의 유선사 고구
△정혜진=죽림고회를 통해서 본 고려무신집권기의 시세계
△이윤숙=한시사가의 초기시 연구-'한 객건연집'을 중심으로

△문경혜=궁예정권과 불교
△오연정=조선초기 병계람의 불교인식
△최현화=나당동맹의 성격 연구-당의 기미지배체제구축기도와 신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조재영=고려전기 석불 연구
△백인산=탄은 이정 묵축화 연구
△이용진=중국 청동기 점의 연구

△장계수=조선후기 소상팔경도에 대한 연구
△김주용=통일신라 소금동불입상에 관한 일고찰

△남정우=형이상학의 이론 정초를 위한 '순수이성비판'의 인식이론
△송승선='신라사의 불교윤리적 패러다임 형성에 관한 연구-통일이전을 중심

한 연구
 △고현길=비이온 계면활성제/물/오일의 3성분계 시스템의 상형형 및 세정력에 관한 연구
 △김현철=수계 아크릴 접착제의 건조 및 숙성 조건이 접착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선옥=녹차 물 추출물의 식품 유해균에 대한 항균 효과
 △김경모=통조림관 코팅제에서 음료로 이행되는 비스페놀류의 분석
 △유윤종=Lactobacillus reuteri에 의한 Conjugated Linoleic Acid의 생산조건
 △김명석=용기 및 포장재로부터 식품유 사용에 의해 이행되는 알킬페놀류의 분석
 △김지숙=Electroporation에 의한 Bacillus subtilis 168 균주의 최적 형질 전환 조건
 △김재국=이동전화기 사용설명서의 인간공학작 설계 방안
 △김영인=생산현장에서 SECI 모델을 적용한 지식경영 촉진체계 연구
 △배재영=자기조직화 신경망을 이용한 복수차량의 실시간 차량경로계획
 △김윤기=혼합형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의 모델링
 △김경진=한국어 음성 합성을 위한 음가 변환 테이블 생성
 △김선옥=선택 정보를 이용한 개선된 메타 정보 검색 시스템
 △김여자=다중처리기 환경을 위한 실시간 트랜잭션 스케줄링 정책
 △엄채임=웹 기반 조선시대 인물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상돈=모델재를 이용한 Long-neck Flange의 성형공정에 관한 연구
 △신귀성=3차원 미소형상 가공을 위한 레이저 어블레이션에 관한 연구
 △허석=다중인출력 능동진동제어를 위한 실시간 유전자 알고리즘 개발
 △김남연=협착 채널내에서 맥동유동하는 유체의 유동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용호=협착 채널내에서 비뉴턴유체의 생리학적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청=방사선이 조사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내Treeing성 향상을 위한 Tree억제제 첨가효과
 △하오선=인터넷을 통한 의료쇼핑에 관한 연구
 △이수영=전화고객상담원의 직무만족 영향 요인
 △김지은=초임 여성의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김태영=사회적지지가 당뇨환자의 식사요법 실천에 미치는 영향
 △강영선=개주얼 의류업체의 상품기획을 위한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박은경=사상인 수족의 형태학적 특징
 △임한재=매제의 '면자심서'에 관한 연구
 △김성원=현호색의 이온삼투요법 활용에 관한 연구
 △박성숙=동충하초의 항돌연변이 활성에 관한 연구
 △한상훈=감두탕 약침액이 항압 효능에 미치는 영향
 △이신규=조각자의 항돌연변이 및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
 △손정숙=사군자탕합침출자유탕이 위점막손상에 미치는 영향
 △박종훈=보원탕이 CCI4로 유도된 간종독 Mouse에 미치는 영향
 △이재중=인진호가 CCI4유발에 의한 간독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
 △전원준=대방풍탕의 LPS유발 관절염 완화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중구=계지복령한 및 그 구성약물의 혈소판응집억제에 관한 연구
 △김창환=당귀작약산 및 그 구성약물의 혈소판응집반응에 관한 연구
 △곽재영='삼한분' 삼양병의 방편에 대한 침구치료 배혈에 관한 연구
 △박종희=해조환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에서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
 △김봉찬=이온삼투요법을 위한 glycyrhizin 표준품의 분출물 구조에측
 △최유영=계지작약자극이 mouse의 LPS 유발 관절염 중 세포성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권태식=월국환합보종이기가이 전기자극 스트레스를 받은 mouse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형환=Bromobenze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손상에서 가미오령산이 항산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
 △민상연=A Study on Anti-thrombic Action of Korean Herbal Medicine, Daejowhan and Its Herbs
 △이구형=동충하초가 hydrocortisone으로 유발시킨 알러 동물모델에서 항산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성태=Effect of Salviae Radix on cell death and DNA damage in renal proximal tubular cells exposed to H2O2
 △한영규=탄수화물 부하식이요법시 삼출

건비타부투가 시험 전·후 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노중 대사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장미경=Protective effect of Juglandis semen on amyloid-β-induced neuronal toxicity and lipid peroxidation in rat astrocytes
 △배태석=대장용종의 임상적 중요성
 △최인석=급성 복증에서의 복강경 수술의 의의
 △엄규환=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조재학=마이봄선 기능이상과 건성안의 상관관계
 △김한규=Chlorpromazine의 유전적 안전성에 관한 연구
 △김종필=후방 관절낭 봉합술을 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
 △이환=방광암에서 p21의 발현 양상과 예후 인자로서의 가치
 △김남일=말기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 전,후의 심초음파 소견
 △김덕수=청소년들에 있어서 근막통증 후군 유행률과 위험요인
 △김준호=Pentylentetrazole에 의하여 유발된 경련에서 Nitric Oxide의 역할
 △이영실=결핵 진단에서 38-kDa항원을 이용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의 임상적 유용성
 △이선주=신성 백서 심근세포 배양에서 Adriamycin 유도성 Apoptosis에 대한 Proxolol의 예방 효과
 △김광수=Slit Scanning Beam Mode를 이용한 LASIK후 LASIK보강수술의 안정성, 예측성, 효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임상연구
 △최영호=경찰조직의 내부 고객만족 방안에 관한 연구

불교대학원 (14명)

△김영수=경허성우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
 △김승택=사유재산에 관한 불교사상적 고찰
 △난다라타나=인도 대승불교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연구
 △강필선=수행차제에 대한 ATTISA의 사상-보제도론과 세소를 중심으로
 △이일동=조선조 불교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박지숙=불교 사상의 카운슬링 활용방안 연구
 △오현옥=노인문제에 따른 불교교과 방안 연구
 △류상배=현대 병원의료 체계에 있어 불교의 참여에 관한 연구
 △김영미=불교복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김중희=불교시설에서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민태순=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학교 사회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오희창=수형자의 교정복지적 처우에 관한 연구-불교교정복지처우를 중심으로
 △김재순=불교교정 사회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불교종교위원의 제소자 교화활동을 중심으로
 △이대환=현대 사찰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연구-어린이집 교육수혜자 입장을 중심으로

행정대학원 (42명)

△김홍건=군 폐기물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방안 연구
 △한경도=지방자치단체의 TQM도입실태 및 개선방안
 △김인영=자치단체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허철=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갑=한국 방위산업의 합리적 육성 방안 연구
 △이종남=북한의 비정규전 부대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연구
 △박현수=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미치는 영향
 △한정규=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
 △이현상=해양분쟁과 해군력의 역할에 관한 연구 포클랜드 해전과 동북아 도서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류광자=컴퓨터 범죄의 수사에 관한 연구
 △주철현=요인테러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윤상규=경찰무도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화=지방자치단체의 민간경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권혁룡=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치안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강중=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태=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 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락=학교폭력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홍종실=군사재판제도의 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통수권확립을 중심으로
 △김운선=지방중소도시 학생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재천지역 학생범죄를 중심으로
 △김규광=도농간 치매 유행률 차이 연구
 △문정희=노숙자 쉼터의 재할프로그램 연구
 △부현철=사무직근로자들의 인정휴가에 관한 연구
 △김동순=경마기수 교육과 신분전환제도의 개선방안
 △임경택=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관한 연구
 △최경화=유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숙=가정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경=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백창기=불교적 관점에서 소년비행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이재휘=불교의 정례문화와 화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부호=종교활동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김기정=서울시 구립 어린이집 입소아 동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승임=교육유지 지원제도를 통한 고용안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현숙=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에 관한 수요자 의식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이상훈=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은평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박동녀=영·유아 보육시설 평가분석 연구 서울 강남구 구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류보선=암환자 가족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관한 조사 서울시내 C병원을 중심으로
 △김자경=노인 전문병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종사자와 사용자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김은구=실업자 재취지훈련의 현황 및 활성화와 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적용 실업자 및 고용안정센터 훈련담당자를 중심으로
 △채요석=김정일정권의 군부역할에 관한 연구
 △강상기=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전망에 관한 연구
 △박형태=김정일 정권에서 군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경영대학원 (32명)

△조복삼=한국 기업의 인터넷 EDI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욱=군 급식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임병희=한국 손해보험 대리점제도에 관한 연구
 △이철훈=부동산 공매의 가격결정과 촉진에 관한 연구
 △신현주=국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혁=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현상=유통업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대형할인점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유옥란=종업원 만족 및 고객지향성이 서비스 제공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유옥란=종업원 만족 및 고객지향성이 서비스 제공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남훈=서비스 품질경역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H 자동차의 직영사업소, 지점 A/S센터, 부분정비업체(Car Clinic)를 대상으로
 △김영철=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
 △김명성=국방관리회계제도의 효율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손유근=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정희=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현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이명철=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우석=부동산의 증권화 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염기현=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과 전망에 관한 연구
 △신일호=시장변화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철규=대도시주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상원=국토계획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환경친화적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준=부동산 프랜차이즈업(Franchise)을 통한 중개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태섭=부동산 임대료결정 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서울시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남호영=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김봉주=사립학교 부동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수익용재산을 중심으로
 △김진은=호텔종사원의 조직 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
 △강병승=호텔 식음료부서의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최형호=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구매행태 연구
 △제이영=국내 주재공원의 상품 이미지 전략에 따른 고객지각의 실증적 분석
 △홍덕기=대형할인점 이용고객의 구매특성에 관한 연구-수도권 소비자를 중심으로
 △정연수=한국적 Silver Industry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실버타운의 사업 타당성을 중심으로
 △김미경=호텔업의 내부통제 실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수입, 현금 및 EDP시스템 관리 및 적용 효과
 △이승춘=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백화점, 전자제품, 이동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조상기=주가지수선물,옵션의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H 투자신탁회사를 중심으로
 △하나미=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방안 연구
 △장명숙=NIE를 통한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이상길=학교장의 변혁지향적 지도성과 교사 사기와의 관계
 △하재화=공립유치원 종일제의 안전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김민수=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차미경=유아의 주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불교의 선활동 프로그램
 △한국흠=Montessori 수학교육이 유아의 수개념 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영철=심성개발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파퓰링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유옥주=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유아 협력 중심 신체 활동 모형 연구
 △최나숙=TA Stroke 기법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서규=교육적 정점에 대한 교사간 이견 분석-교원노조 합법화 이후를 중심으로
 △이성숙=청소년 상담실의 실태분석 및 상담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서울시교육청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최명선=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인식의 인식 분석 An Analysis on Parent's Recognition toward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n Korea
 △정종복=동연사 연구
 △김동준=이음악 시 연구
 △박영자=소식의 철리아 연구
 △고영란=왕안석의 영사시 연구
 △전희연=임병양랑기 문유록 연구
 △이수진=당·송 매화시 특징 연구
 △최미남=우항 박태현의 작품 연구
 △한은미=취석실 우하영의 경제사상
 △이철수=심전 안중식의 생애와 서화협회
 △윤봉환=안료의 특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백규근=Hemingway의 Stoicism에 관한 연구
 △이동익=활용어미·'게'의 통사 기능에 대하여
 △김순래=한말 윌렌도르프의 외교·경제활동 연구
 △신지영=Rabbit, Run에 나타난 성과 종교의 문제
 △장상도=문제해결 전략의 수학적 의미

에 관한 연구
 △박창성=운동강도에 따른 혈청 LDH와 CK의 변화 연구
 △정병곤=남북한 언어의 파생어 형성에 대한 비교 연구
 △강은희=청소년소비자의 수입상품 선호도와 구매의사결정
 △김천애=수학교과교의 효과적인 수행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손성훈=선인장으로 표현된 인간소외·본인작품 중심으로
 △김대성=한 국 산 열 남 거 미 과(Clubionidae)의 분류학적 고찰
 △이명선=한 국 산 응 달 거 미 과(Uloboridae)의 분류학적 재정리
 △이청희=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여성동=수학교과교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신성현=태권도 수련을 통한 전통사상의 계승발전에 관한 고찰
 △김현택=보존놀이 프로그램 제작·활용을 통한 수개념 형성방안
 △김석기=골프 기술수행에 따른 타수별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양명석=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욕구 및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강재원=태권도 태극 폼새에 대한 동작의 구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이정현=구성주의적 학습에서 수학적 개념구성에 대한 교사의 역할
 △김동식=중등학교 체육교사의 학습평가에서의 개념적용에 관한 연구
 △김순권=초·중 교과서 집합 영역의 연계성과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염영아=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수업과 CALL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염동락=「박태보전」 연구-실기문학 계열 〈박학사절록〉을 중심으로
 △하재선=문제 유형별 과제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곽성수=OSCAR WILDE 윤리관 연구 The Picture of Dorian Gray를 중심으로
 △박문래=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표현-중학교 1학년 미술과 적용을 위해
 △서승아=시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시론-황지우의 제 4시집을 중심으로
 △최혜경=안산시 반월국가공업단지의 입지전개과정과 공업구조에 관한 연구
 △이현주=조소에 관한 교육방법 연구-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김은희=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 일기법의 활용 방안-초·중·고교를 중심으로
 △박경현=중학생의 왕따 실태와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남홍우=CAI를 통한 수학 학력 신장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1학년 함수를 중심으로
 △현상훈=수학 기피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수학 학습 지도 방안 모색
 △권종택=수학에서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문제 이해력 중심으로
 △김기의=Wingoom을 활용한 공간도형 학습자료 개발 연구-고등학교 수학Ⅱ 공간도형을 중심으로
 △남창모=고등학교 수학교육에서 삼각함수의 효율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공통수학을 중심으로
 △박두근=실용수학에서 효과적인 수행평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포트폴리오(Portfolio)법을 중심으로
 △김주원=수학적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코스웨어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함수 단원을 중심으로
 △하수미=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변화과정과 내용 비교분석-제 7차 고교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김경숙=3차원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를 이용한 CAI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초등학교 6학년 자연「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윤용로=SHAKESPEARE의 낭만희극의 여주인공들을 통해 본 여성의 정체성과 양성성(Androgyny)에 관한 고찰-As You Like It 과 Twelfth Night를 중심으로

언론정보대학원 (8명)

△황수건=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사용자 인지도를 심으로
 △황화선=출판 디자인용 한글 폰트그래피에 관한 연구-한글 본문용 폰트를 중심으로
 △조미숙=베스트셀러 소설의 영향 변수에 관한 연구-1990년대 한국 베스트셀러 소설을 중심으로
 △조도현=베스트셀러 변화의 추이와 맥락에 관한 연구-한국의 최근 10년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9면으로 계속)

△오대수=TV교양 프로그램의 리포터 운용에 관한 연구-KBS 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범=자동차 마케팅 촉진 수단에 관한 요인 연구-서울 모터쇼를 중심으로
 △윤수현=자극암검진 유도 광고에 적합한 소구유형 연구-긍정적 소구(Positive Appeal)와 부정적 소구(Negative Appeal)의 광고효과 비교
 △박정수=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및 이용 개선 방안 연구-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기술환경대학원 (21명)

△이영희=포도종자 추출물의 항균 활성
 △김영규=교정시설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홍육조=건축물 방화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권대철=진단방사선과의 쾌적환경을 위한 연구
 △김도영=VPIM을 이용한 통합메시저서비스의 설계
 △정윤종=Push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쇼핑몰의 구현
 △강인석=도시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
 △박정수=꿀풀조 기계식 주차빌딩의 구조 시스템 평가
 △천승욱=중소규모 회사의 효율적인 ERP시스템 구축 방안
 △백희숙=운전 시뮬레이터 증후군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선우현=관광형 중간 수직보강재의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나정식=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용자인 증시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정수=인터넷 원격 교육에서 학습자 행동 파악에 대한 연구
 △구경분=객체지향 개념을 도입한 공역통제 지원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철재=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탄소섬유관강 강 구조내력 평가 연구
 △하성복=철근콘크리트 지지철 구조물의 보수, 보강공법 특성 분류에 대한 연구
 △박경수=군산·장항국가공단 연안에 서식하는 패류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이용희=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A Study for Fall Accident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Sites
 △이성숙=정경생산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
 △이경원=산림의 흡수효과를 고려한 한국의 이산화탄소 수치 분석에 관한 연구
 △박세호=고무제조합공정의 대기오염 방지기술과 원료 회수 재활용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대학원 (12명)

△이윤경=이형기 도시시 연구
 △이미영=순창읍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박수진=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처용의 수용 양상
 △오재숙=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돌의 상징성 연구
 △박성원=반(反)성장 소설연구-김주영과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홍지숙=한국 발레사 연구
 △박정민=감로정화의 도상변천에 관한 연구
 △최영희=감로정화에 표현된 교화적 성격고찰
 △차영수=조선 후기 불화에 나타난 해금 연구-감로명화를 중심으로
 △김태곤=동음집에 나타난 짓소리 연구-인성·거영산의 선율을 중심으로
 △정병관=도시 민속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무악 청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동범=환경조형물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6명)

△최부식=경주시의 자연환경 실태와 관리체계
 △성원기=신체대 장애의 의식성향과 효과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정대용=농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발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홍해읍을 중심으로
 △권인혁=과연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포항철강공단을 중심으로
 △송진하=중국의 금융개혁과 지역금융에 관한 분석
 △김경민=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학사학위 (총 3,939명)

불교대학

황성철	류건용	권우석	김종섭	평성규
김수양	최정주	이소연	장은지	이경희
신은영	장영희	이윤석	류정수	소병선
권기태	이수균	서정연	곽우기	손보라
구민호	양삼미	오승연	김 현	김현석
강인자	김숙이	안상희	정수영	유춘옥
김형석	박인지	김우경	이주영	권수현
장원경	최정현	김남길	권현경	주두만
유지영	함진선	김예경	김현수	한신애
배은미	최 훈	정영기	진선희	지소영
오영석	염서훈	김두식	조동섭	김현순
김종수	이두례	김미숙	정기성	최수양
이종수	이선애	강미숙	박인명	박정선
김현정	신희정	김용호	양 혁	김영희

문과대학

조창모	박 진	배재형	정상훈	김택경
진석준	송승훈	권오수	이승한	김인영
최문정	한은정	김민정	이민아	이미정
이수연	류희명	신형석	최아란	최재형
박연자	김수연	서귀향	하영아	윤신숙
김민자	장세진	양태근	황희성	강병철
최문수	서정철	박종덕	김향수	박명수
오진웅	소현영	박지범	이운진	김진범
이호택	곽종욱	신일영	이기가	윤용민
조홍규	공병민	이복현	박수정	류희석
양성만	김오현	유환성	정동수	최희성
정민형	장수성	전현희	임혜진	양경은
함혜진	신정옥	문성규	박주영	조민숙
김태희	윤수정	김현성	최봉진	오세권
김광민	박주연	황 형	허진영	안길호
배일환	김민지	김광원	최유미	노선종
고수경	이정미	김지혜	안명선	김정아
신기영	조세희	이주은	박은미	최정림
김혜진	김상길	김지남	곽영희	정현정
문현경	김지혜	오태영	이상근	이영실
이승우	박지혜	김현정	유경조	전세영
은주연	박재우	고석재	이태호	황기홍
이근욱	이석수	송재범	이형진	송진호
박승철	김윤우	신현규	김승재	한원희
남궁성원	송기상	부종철	김정민	
안준호	양은정	최진범	김진숙	최인희
이정운	오명숙	이지운	강소영	우주선
선현명	정호숙	이선영	이상현	윤현정
라지형	김연정	김은영	윤현숙	오지혜
김정민	류근분	박수현	심미선	조형희
윤상환	함혜진	황창자	홍운영	유진희
손덕분	정성민	윤종표	김지홍	임희진
신은희	최문정	박상태	이광오	손영준
오수진	김학민	심종열	박주현	한정연
김경미	윤현영	김욱림	한사자	이정민
이진아	이진희	김정인	노성일	이난옥
이은진	백경열	황운진	최유진	차의진
이정민	백지선	이의진	모하영	김지은
박현주	이종규	황진호	이경완	김진도
윤상환	이성주	조광화	김현우	최순영
봉선안	김정우	조홍석	이현숙	김수미
조은영	김연미	권현원	조성희	손상일
이금남	김선주	이선영	조유영	김소영
진민경	노복영	임금식	곽유찬	장조은
진정옥	이수은	김수홍	전승근	임재경
배경화	정규남	송현수	유 진	이진옥
신은정	조명희	송은영	김경란	김현미
홍영란	김태연	신수진	김동용	김규아
유경희	김정혜	류학순	하미라	전용재
이지은	조정남	염은성	박상희	조진영
최은애	김순자	나미순	수상호	이혜란
유민상	성연옥	송정석	맹소영	문혜신
정소희	양희정	한선영	서애경	이정은
김영주	윤채원	명수진	김미영	최혜진
김현정	김태정	안정숙	이정섭	박한나
도인성	조 희	김은혜	이지영	박한아

이과대학

김성호	정인수	김상수	이상일	홍석범
유병우	김성진	이광열	소우성	이장훈
배재현	은종찬	양장열	한덕수	양창희
신용은	이보라	송화영	김창미	이나영
김남희	조나영	임지숙	이진선	조종원
황진경	남원희	원진영	박정미	김지영
박지혜	최은희	김경아	유정경	조민영
최 룡	김창준	김승희	정태원	송창범
황종일	주현찬	박정훈	정주영	노은영
정수영	강원희	김영진	안호춘	김영화
김정아	정현주	권준숙	박기만	이진선
이수정	김진우	차주영	김지은	강영옥
신은성	우영석	장운선	이정원	김광호
서은경	최소영	임노길	유병오	김성진
조의재	조상영	김덕현	김상모	김재범
이기영	임종호	신경식	곽덕진	박준용
남궁재남	김영석	권철기	정진호	
박혁장	조근희	전희옥	강지연	장혜선
채지현	이도경	김신애	서원미	김우령

법과대학

장종현	김현우	최승선	김경원	김정훈
박준우	전광재	임보성	신승철	나상원
김도형	이기동	위세량	최진식	김태환
정성일	최현호	김민태	구보철	동재원
강진배	서지원	김성진	이명재	이명재
김태환	김용산	정선종	이우성	김기홍
곽석규	김선오	공민식	박영진	이기복
남정현	성민재	이상승	박성철	최형근
신소영	이준구	김종기	신용욱	하영희
임연경	이선영	최휴진	김태규	권정희
박진진	김석호	이병주	김병환	김용호
강태준	한석연	송철욱		

사회과학대학

이용석	임성범	김준근	장문석	김하균
김필수	한정훈	윤천규	배경민	최성수
최원철	박성호	허창수	김경훈	강중구
황영준	박강현	조두권	김경수	한정석
한지연	안유진	정의교	이현경	최여나
권혜진	윤영화	조영란	박 분	이종현
배준형	성화정	표성대	서은영	안호춘
이현철	정동준	전혜영	이현아	이소영
최 호	최종필	김지현	김지연	최심미
이정호	전병진	양 일	이병갑	조성준
이선형	유영규	최성진	김재호	김준태
양순원	성용욱	조용복	김길년	송정희
차석모	김병욱	장원석	이병관	장민석
진충원	정비호	성영광	전은정	지성민
조유재	남궁용호	신익서	김희정	
염서훈	김종하	김재연	김세진	김정대
허재혁	구재모	김기동	홍승훈	박재철
최철호	김성진	정은미	황지연	정아영
이은주	심지애	양지연	곽은희	이선영
진기욱	정소영	고지은	김정원	이희정
김지성	박경선	이주민	유창우	박혜영
노다아	노다아	노다아	심민우	류준화
우영규	김홍식	이상현	이창민	김용근
오광석	김현수	정세종	한춘연	조민행
강연우	이광윤	지지환	김광진	신상호
김대문	이희정	이동희	김광희	김정희
하상우	박소연	이재준	박미라	유정복
김재주	정용수	박상열	김정은	송은근
정기영	성민석	김근수	김용남	이정구
홍 민	김휘성	이대현	원효진	이혜정
김 결	최영진	서유석	오재민	김은영
윤수연	이근수	김상철	김석진	이종태
이명희	유병희	정태욱	박재우	최명은
조영심	홍순희	윤정은	신현주	이유진
김정준	손연숙	이재봉	강봉수	장권관
김형진	한혜정	이상화	임소숙	유보숙
윤은정	한진영	진현진	윤지화	박유정
김지연	임홍철	권상중	노석래	박훈순
송수연	원종필	신이철	이미희	양소연
유영석	김준우	안미자	요주령	권태형
김재영	손효진	이수인	윤신철	김소은
김현성	김희진	소은경		

경상대학

김종규	당대규	박우일	이상도	이형민
현준식	곽택진	전광진	권성훈	김효재
고선복	이정옥	송명환	박박기	황소일
박찬우	박재철	조태희	김진모	최미영
권혁진	장미화	김성림	이원석	김춘송
윤도선	하은영	허부강	최재민	이정락
김종백	김영실	문병도	최영수	최소수
김동기	전호영	전진찬	주태환	이상준
이희범	배승우	유덕선	우경천	나병관
김병준	박준석	유원도	류광우	서희홍
박재우	신인호	김양호	최성호	이윤호
하 준	권영철	안병철	최형택	양은철
박성재	최진호	이지용	안상현	이인호
고진하	장동권	김용재	한선욱	김민봉
김혜윤	양지현	류주희	김희영	정희경
이창환	문홍룡	오 용	황성문	순유복
정성구	박재영	주영태	왕경문	정재홍
이우진	전희옥	이상민	조지영	안승복
유영욱	한지성	무개리	유석현	박정원

박응식	권용관	이진희	박상연	신 준
김민기	강희훈	오철생	이원석	염기우
김정훈	이정운	권영균	이인걸	진장영
김정찬	최재성	장성근	함우석	이태민
원도연	이정호	나정용	이동철	김주완
손안달	박용수	황의성	장재호	심두현
이규현	선영근	강지훈	이정우	장상용
김태일	박영민	최영삼	박진우	손지은
유민정	김의현	김 수	김수정	권계영
이승안	이숙진	임비승	정민숙	허민숙
장배양	임희순	서인석	이승준	이성연
손은영	이보희	양화찬	윤기수	박기운
김종구	김승현	소용섭	이상협	양지수
박규혁	한영준	최광원	채상도	이경진
황성운	조재현	성명규	배영삼	장기찬
김재도	김형석	김병현	김미자	오진영
현해민	최은정	유영민	김세희	김경하
강경희	이현경	이유진	양소희	진동호
김강호	김재필	김수진	이영수	백민철
계경태	최승우	이정홍	윤주리	신누리
김병중	임정우	이경환	공승찬	박은규
이승상	김종원	조경호	이정우	강신중
현종명	김성용	강현구	최은경	안 응
황신익	김철학	박성철	박용훈	
김인수	김해룡	이상훈	강민수	전영일
구장주	오유신	김정진	윤성로	이형우
최현준	이 근	김영환	김영삼	최경섭
이희승	유정석	정성필	장준연	임동민
하승근	김상혁	안복경	조성현	김희영
김인원	장영준	최승혁	박인영	신용우
민도식	고성철	김남동	조현수	김이조
원인철	김수환	전성중	김대진	한신희
김한선	오상준	이금복	서정규	권민식
안나나	구은숙	조용준	문형숙	김인선
조정은	신선화	이명희	오수영	이승희
조정숙	박지아	이경은	정진욱	전영희
김민숙	심은영	김형선	오다비	오수미
김현희	박경미	박성연	박성은	이지현
최원희	김광일	김병우	신석식	신유선
박재석	김연주	이승복	김경호	박완규
신욱호	노연희	오정석	이혜경	오경숙
김윤희	한병선	장진수	김선자	우인철
윤은환	안수열	소미란	최원진	심혜진
문지아	송영주	이호연	송호순	김희영
허정아	류정림	이은하	백동민	김상진
임정미	김기원	김민정	김규용	김진석
이남순	윤찬구	최지원	박영완	양희정
홍성민	이창환	염준과	임지연	김영조
이병원	김지연	안지영	양 일	홍은주
이정규	김태영	김수경	김상완	남혜수
김영준	남우신	소강섭	김승표	전동선
김기웅	김휘수	신기복	조진필	정재욱
이지원	김준조	노성호	김현민	임재경
임태일	이태성	김창식	정미영	가희숙
박주영	김경선	김대근	신병주	김지희
정병주	박영규	서창식	박찬은	이명선
김현준	박종열	윤미정	이소영	최은정
김지성	이미나	윤정민	김신순	이진민
김민아	김효정	김중화	김윤정	임아화
안상미	박성진	안 숙	지애숙	박미숙
박지은	김수자	신승현	원동연	박형욱
이은실	황수영	최지훈	표재상	박영수
이경민	백광현	이대직	이승림	이정석
이희열	박상우	송종원	김대일	임재우
김연우	한현식	전용근	이화국	김우진
김충섭	한상대	손승표	강대인	송가영
교문개	신영진	이현주	곡서걸	박성재
류경화	이세지	안혜경	이경진	김소은
최소민	이정주	최재석	임 연	주현정
김태우	임정호	신소석	방상애	안미은
조혜진	이수광	나성우	김환민	정희석
허광원	김희태	김정길	이정기	조성태
이동근	변준호	현정훈	강문규	이승우
오현민	양지연	박선희	이영수	김은미
이지연	한중용	박유라	이현숙	유민지
이은수	임현진	육태일	장호중	임동준

생명자원과학대학

김호성	조항주	윤삼철	양지욱	임철용
홍운석	강봉진	최정아	심보경	전용주
김동석	김진영	김희진	조희주	송은호
한규림	진선아	마연숙	이영우	전한경
김상진	서병관	이지호	유정민	김영태
김광진	이기성	권은호	김상호	최대욱
권순재	정동석	이혜재	김선욱	채민아
김진아	강일해	배운의	이영순	조나영
진미옥	김용복	도정욱	김현정	소호태
고정연	안운주	이은진	박재운	한중윤
조현철	이영복	김성진	구은모	이호수
이성진	김의재	고혜경	임정희	정경숙
최소희	김승림	최은숙	김은희	정연미
김문정	홍주연	채진희	권희경	박건미
김성준	황선주	서지연	정창원	이형준
송차정	김동기	김소훈	이봉준	이상재
남달현	이기정	강두한	이창희	신중혁
김신호	조성민	정현진	구지경	김미영
원석현	이현주	강정욱	서승욱	이현민
조영우	이영도	김혜진	이정석	정준교
김호성	조항주	윤삼철	양지욱	임철용
홍운석	강봉진	최정아	심보경	전용주
김동석	김진영</			

퇴임교수 인터뷰

아낌없이 주는나무

긴 세월을 우뚝서 이제 커다란 그늘이 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시간을 금처럼 아끼며 쉬지 않았지만 아직도 끝낼 수 없다”



신용태 교수
문과대 일어일본과

“제자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좀더 학생들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18년 재직중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신용태(일문학)교수. 말끝을 흐리며 신교수는 퇴임소감을 이말로 대신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까지 교직생활로 42년을 보냈다. 강산도 4번이나 변했을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남은 일들에 대한 열의로 가득차 있다.

82년 일문과가 타학교에 비해 늦게 창설됐을 때 새로 부임한 그는 당시 뒤처진 일문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금의 일문과와 일본학연구소가 그의 업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업적들을 이뤄내기 위해 15년간 새벽 5시에 나와 밤 10시에 퇴근했던 그는 “시간은 정말로 금입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만으로 연구하기란 불가능하지요”라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걸치레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 사회는 활연 지연이 아닌 실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교수, 학생들은 이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에 맞게 자신의 본분인 연구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전한다. 그리고 몇몇에 의해서 학교가 움직이기보다는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영어와 한자는 필수고 일본어, 중국어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지요”라며 학생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국제교류기금 초청 국제 일본문화센터 연구원이기도 한 그는 앞으로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와 ‘채미있는 한자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세상을 넓게 보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후회없는 지난날, 새로운 학문과 학교발전은 제자들의 몫”



홍윤식 교수
사범대 역사교육과

마무리는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에 끝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다. 이제 인생의 한 장을 마감하고 더불어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홍윤식(역사교육학) 교수. 후회는 없지만 단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며 담담하게 퇴임소감을 밝힌다.

올해로 동국강단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지 만 13년. 학부생으로 거슬러 올라가 따지면 더 긴 시간동안 동국이라는 인연의 실태대로 이어져 온 셈이다. “당시에는 손꼽히는 명문사학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지. 학생들의 학구열도 식을 줄 몰랐고 말이야. 요즘에는 그런 열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라는 말로 학부시절을 회상한 홍교수는 역사학도로서 동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세월의 흐름을 절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평생을 후학양성에 힘쓴 홍교수는 동국을 명문으로 만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닌 학생들의 열망이라며 자신은 퇴임하지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본교를 빛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보냈다.

퇴임 후에는 전통문화 연구와 일본에서 강의활동을 하게 된다는 홍교수는 “난 말이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 그때는 어찌나 규제가 심했는지 한번 들어가면 쉽게 고국에 나올 수도 없었지”라며 자신의 유학시절을 떠올렸다. “한번은 부친상을 당했다는 기별을 뒤늦게 받고 귀국하려 했지만 장례식도 이미 끝났으니 귀국하기를 내줄수 없다는 거야. 요즘 같이 교육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지”라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평생 역사학자로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온 그는 역사교육의 기회가 축소되면서 점차 일반인의 역사인식이 부족해 간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덧붙여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학을 위해 다양한 영상매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 동국의 터를 벗어나서 더욱 열심히 살아갈 홍교수. 힘들었던 유학시절과는 다르게 푸른 동해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길 기대해 본다.

<윤>

“제자들 위해 헌신한 20여년간이역을 스쳐지나온 듯”



오홍석 교수
사범대 지리교육과

“인생은 하나의 간이역인 거야. 간이역에 바람이 스치듯이 나는 동국대를 스쳐 지나가는 걸세. 그 사이의 인연에 감사할 뿐이지” 78년 3월 본교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한길을 걸어오면서 보낸 20여년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고 미련이 남기도 하려면, 오홍석(지리교육학)교수님은 때가 된 것일 뿐이라며 담담히 웃는다.

“두꺼비는 태어나면 자신을 낳아준 어미의 몸을 갉아먹고 살지. 그러면 두꺼비 어미는 겁때기만 남는 것일세. 나도 학생들에게 두꺼비 어미를 자청했지만, 아직 걸어도 힘이 남아있는걸 보니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양이야”라며 자신의 공적을 겸양하는 모습에서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

인 할 수 있었다. 자녀 3명이 모두 본교를 졸업해서 제자들이 학생이 아닌 자식 같다는 오교수님.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려 했지만 그렇기 못한 것 같다는 교수님은 모습에서 제자사랑이 느껴졌다. 퇴임후에도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이나 출장강의를 하게 될 거라는 오교수님은 움직이지 않으면 생산되는 것도 없다며 노익장을 과시한다.

퇴임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참고 이겨내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있을 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 꼭 성공하게 될거야”라며 졸업생들 격정에 여념이 없다. 사라져가는 대학생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도 던지시 건넨다. 그리고 자신이 퇴임한 후에 들어올 새내기에게 “만날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국’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행정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지. 학생을 자신의 자비로 보면 어떻게 돌지 않을 수 있겠어?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거야”라며 학생들을 위한 과제를 학교당국에 던지는 것도 잊지 않는 교수님에게서 우리의 부모와 스승의 모습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표>

bluerain@cakra.dongguk.ac.kr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학문화하지 못함이 아쉬워”



정명호 교수
예술대 미술학과

“그저 시원하고 좋아” 32년간의 교단생활을 정리하는 정명호 교수는 퇴임소감을 이 한마디로 대신한다. 그는 오히려 매년 있어서 풀려나는 ‘해방’마저 느끼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아쉬운 빛이 스치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그는 석등에 대해 남다른 철학과 애착을 가지고 불교 미술의 길을 걸어 왔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논문들과 많은 사진자료들이 그의 업적을 한눈에 드러내 주고 있었다. “1960년대 초에 내가 ‘석굴암 보수 공사’ 학술조사원으로 있었지. 또 1974년 익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을 발굴했던 현장에도 있었고 말이야” 이러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그에게서 우리문화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나라의 교육이 너무 서양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적하고 아직 전통을 지키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씁쓸함을 비추기도 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책장과 상자들은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동안 모아둔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후배들이 읽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라며 학자로서 후학을 위한 배려도 보여 주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태도는 그만의 특색한 향기가 있었다. “부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사람스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네”라며 불교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교수는 퇴임 후 ‘우리 공간 문화 연구소’라는 곳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유적조사와 전문서적을 모으고 연구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한다.

“18일쯤 중국으로 의상과 자장 열사님이 공부하셨던 지취를 따라 갈 생각이네” 퇴임을 맞으며 선인의 자취를 따라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그의 뒷모습은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다.

<영>

“열정과 성실로 보낸 학생들과의 순간이 소중한”



신현계 교수
인문과학대 영어영문과

“그냥 시원섭섭하네. 주변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큰 무리없이 퇴임하는 것 같네” 퇴임을 준비하는 교수답지 않게 무척 무덤덤하게 첫발을 열었던 신현계(영문학)교수.

지난 20여년간 경주캠퍼스 영문과 교수로 활동해왔던 그는 하루하루를 교육을 담당하는 학자로서 그 면모를 확실히 지켜왔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켜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강의를 마치고 남는 시간마저도 반납하고 무료과외를 해주기도 했지. 힘든 건 커녕 오히려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더욱더 힘이 됐

고, 교육자로서 보람됐어”라며 그때를 회상하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그 또한 교육자로서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하루하루에 충실하려 했으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걸어간 그를 셋길로 밀어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분명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실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학교를 떠나고도 싶었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야”라고 말하는 그는 진정한 교육자가 지녀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듯 했다.

“캠퍼스의 낭만이라... 뭐랄까? 그런 거라면 지금은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지만 예전엔 학생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진정된 학문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곤 했지”라며 오늘날 대학의 모습에 한숨을 토로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그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단편적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허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동악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진취적인 학생들이 되길 바래”

인터뷰를 마치고까지 제자들에게 남겨 줄 덕담 또한 잊지 않았던 신현계 교수. 학자로서 ‘정직’과 ‘성실’의 삶을 추구하며 외길을 걸어온 그의 발자취가 늘 동악인의 가슴속에 새겨질길 기대해 본다.

박현호 기자
terry@mail.dongguk.ac.kr

“학문에 대한 자긍심과 제자들이 있어 인연은 계속 될 것”



황순구 교수
인문과학대 한문학과

철길 위의 낡은 기차를 타고,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져버린 그들을 떠올리며 오래전 기억속으로 달려간다. 어느새 33년전 처음으로 강단에 섰던 그 자리에 시간의 열차는 이미 도착해 있다.

“처음 학생들로부터 느낀 열정은 나를 지금까지 강단에 서게 한 원동력이었네” 중점직 앞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황순구(한문학) 교수.

중국에서 시작한 학문의 길을 중국에서 접게 되었다는 황교수는 동문 선배이기 이전에 동국의 발전을 바라며 학생과 교수의 하나됨만이 진리의 상아탑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 말한다.

“예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안일함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와. 처음 하고

자 했던 목표를 항상 가슴속에 새긴다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텐데 말이야”라는 황교수의 ‘처음처럼’이라는 어구가 귀전을 땀땀다.

“난 성실하고 진실되게 보이는 교수가 되길 바랬어.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는 진실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일세”라고 말하는 그는 60년도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다. 또한 그가 논하는 ‘사제간의 진실’이 교육의 연결고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진리를 엿볼 수도 있었다.

한문학의 매력에 대한 물음에 “한문학 없이 한국학의 어떤 학문도 접근할 수 없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 난 한문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네”라는 당부적인 말과 함께 한시 연구에서 닭은 경험에서 얻어진 여담을 들려주며 후학들에 대한 애정표현도 잊지 않았다.

퇴임을 몇 달 앞두고 경주캠퍼 도서관에 1만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던 깊은 동국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황교수는 강단의 끄트머리에 서서 그가 간 거를 걸어온 기억들을 뒤로하러 한다. 그러나 그의 끊임없이 학문하는 자세는 한문학 연구에 더 커다란 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진실’이라는 사제간의 고리는 더 나아가 황교수와 동국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태대로 엮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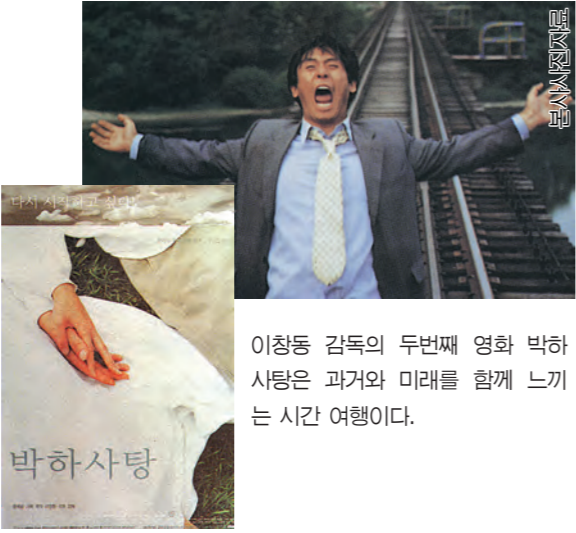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매체비평

-영화편

‘박하사탕’

“인생의 달콤 쌉싸름함에 관하여”



이창동 감독의 두번째 영화 박하사탕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느끼는 시간 여행이다.

유태인 수용소에 갇힌 한 남자가 있다. 죽음을 맞이하려 가는 순간 까지도 어린 아들에게 장난스런 눈짓을 보내며 미소를 잃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는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도 남은 낙천과 희망을 보았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푸쉬킨의 시구처럼 로베르토 베니니는 영화를 통해 죽음의 순간마저도 아름답게 펼쳐보여 줬다. 그리고 지금 기차에 몸을 내던지며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하는 한 남자가 있다. 순수했던 지난 날로 향한 간절한 바람을 토로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주인공 영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삶이 아름다운가’ 끊임없이 반문하게 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영화의 흐름은 조금씩 가슴을 짓누르며 역사와 사회의 비극에서 한 남자의 슬픔을 끌어낸다. 지금까지 개인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려졌던 여는 시각과는 달리 그 어떤 가해자, 피해자도 볼 수 없다. 다만 개인과 사회의 소통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역사속에는 필연적인 비극이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극의 과정들은 순임, 작부, 미

스리, 아내로 대변되는 주인공의 여자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박하사탕처럼 순백으로 고운, 하지만 언제나 알싸하고 씁쓸한 삶의 희희를 물고 오는 첫사랑 순임,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순수의 이름을 대신하는 작부 경아, 타락한 현실속의 미스리, 무관심과 절망을 떠안는 아내 홍자. 하지만 주인공이 겪는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연민으로 변하며 어느 순간 심복함으로 다가온다. 같은 세대를 겪은 사람에게는 지난날의 순수함에 대한 질은 향수를, 오늘을 사는 세대에게는 예견된 미래를 보는 듯한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 때 때문이다. 그러나 비단 순수로의

시간여행이 아닌 순수를 지향하게 하는 여행이기에 결코 지나치게 무겁거나 혹은 가볍지 않다. 로베르토 베니니는 시종일관 우스꽝스럽지만 서글픈 몸짓으로 ‘인생은 아름다우니 살아볼만하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명작이었다. 이창동 감독은 시종일관 절망과 희희를 품은채 ‘정말 삶은 아름다우나?’ 라고 묻는다.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영화였다. 하지만 과연 삶이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다. 단지 인생이 사랑처럼 달콤 쌉싸름할 것 같았구나를 느끼게 한 우리 영화 ‘박하사탕’은 아름다웠다. 문화부

졸업, 항상 시작을 향해 열려 있다

졸업식에도 역사는 흐른다

74학번 동달이의 졸업식



오늘따라 동달이의 아침은 설레이기만 한다. 드디어 졸업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들 대부분이 취업을 하거나 군대에 갔지만, 동달이는 대학을 선택했던 만큼 오늘의 졸업이 값지다. 장발에 통기타를 메고 캠퍼스를 누비던 낭만과 술을 마시다가도 통행금지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추억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얻었던 특별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사후에 나가서 펼칠 때가 온 것이다. 졸업식장을 가득메운 학우들과 학부모들의 엄숙하고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 졸업식이 시작되고 동달이는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리라는 결심에 표정마저 비장하다. 졸업식이 끝나고 손에 들려진 졸업장을 뿌듯하게 바라보던 동달이는 가족들과 함께 인근의 자장면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82학번 동학이의 졸업식



동학이는 아침부터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 졸업을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끝없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학교로 향하면서 많은 동기들을 만난다. 동학이와 동기들은 오늘 졸업을 거부할 생각이다. 군사정권 아래서 편향된 학교정책 때문에 쌓인 불만들이 쯤처럼 수그러

들지 않아 졸업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동학이는 졸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동학이는 단상을 등진채 자리에 앉는다. 주위를 살펴보니 동학이와 같은 자세로 앉은 학우들이 많다. 졸업식 중간에 뛰어나온 동학이와 동기들은 자기들만의 조촐한 졸업식을 갖기 위해 인근 주점으로 향한다. 막걸리 한잔에 민중가요를 안주삼은 그들의 졸업식이 시작된다.

95학번 동순이의 졸업식



아침부터 동순이는 분주하다. 졸업식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지만, 뒷풀이에 입을 옷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더 걱정이다. 친구들 대부분은 IMF의 여파로 아직까지 취직을 못했지만 동순이는 어렵게 취직에 성공을 했다. 취직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졸업식장에는 많은 학우들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취직 시합준비를 하는 학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표〉 bluerain@cakra.dongguk.ac.kr

졸업에 관한 짧은 생각

초등학교 졸업하던 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듯 아련히 컷가에 맴도는 졸업식 노래.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추억의 노래가 돼버렸다. 막연히 졸업만 하고 중학생이 되어 교복만 입으면 어른이 될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다. 꽃다발을 들고 졸업장을 손에 쥔 채 찍었던 졸업식 사진은 어찌 그리도 어색하기만 한 것인지. 초등학교 졸업의 의미는 아쉬움이기보다 차라리 성장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다. 유년기에 대한 추억을 뒤로하고 한발 앞을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미련도 적고 졸업이 주는 이별의 의미도 슬프지만은 않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을 설렘으로 맞이하던 초등학교 졸업. 그래서 먼 훗날에도 흐릿한 기억으로 많은 이들을 미소지게 만들곤 한다. 까마득한 기억속에 묻혀 있던 어린 시절, 유난히 눈이 크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발가벗고 장난치던 그 녀석은 뭘하고 있나. 졸업과 함께 추억이 돼버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사춘기를 졸업하던 날

유난히 추억도 많고 고민도 아픔도 많은 중·고교의 졸업은 은총 축제분위기였다. 밀가루와 계란, 폭죽이 오가던 사춘기의 졸업식은 부모님의 간섭과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날이기도 했다. 사회와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춘기의 졸업은 비로소 자아를 느끼는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와 가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첫 번째 계단이 중·고교의 졸업이다. 멀리 보기 위해 부단히 날개짓을 해야 했던, 성숙하기 위한 댓가로 아파야 했던 사춘기의 졸업은 그래서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동안의 방황도 오랫동안 남아 아쉬움과 후회의 여운을 드리운다.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뻘 정말 어른이 돼 있었지? 해가 갈수록 잊혀져 가는 옛 약속들을 되새기며 그때의 기대와 두려움을 돌이켜 본다.

대학 졸업하는 날

문을 두드리고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향해 돌아서는 것. 우리 인생의 졸업은 늘 시작을 향해 열려있다. 사춘기의 졸업식을 끝으로 다시는 줄을 서고 졸업장을 받고 꽃다발을 받는 의식을 하지 못할 지라도 목표한 일을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면 그는 또 다른 졸업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졸업은 천국의 문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실업난 때문에 두려운 미래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극복해야할 것들이 남은 현실속에서 졸업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록 우리를 앞에 불안한 미래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 다시 졸업해야 할 인생의 과정이 될 것이다. 반갑지 않은 현실의 문에 부딪칠 지라도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때때로 축하인사, 화려한 꽃다발, 여기저기서 터지는 플래시들이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시작을 축하한다. 인생의 커다란 졸업을 위해 조금씩 걸음을 옮겨야 하는 날이다. 문화부

기자가 원하는 명작

영화 -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

명문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상류층 벤자민에게는 부모님의 기대가 위선적인 기성세대의 자기 과시로 보인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고민하는 스무살 청년의 세상 경험은 로빈슨 부인과의 불륜으로 우스꽝스럽게 시작된다. 결국 그는 부인의 딸 일레인과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되찾지만 불륜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떠나버리고 만다. 하지만 일레인의 결혼식날 벤자민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교회 결혼식장까지 쫓아가 그녀를 납치한다. 이것이 베트남전과 기성세대 보수주의에 저항하는 히피문화가 절정을 이뤘던 60년대말, 미국 청년들을 열광시킨 '졸업'의 대대원이다. 사랑도 아닌, 그저 자기에 대한 동정과 실재없이 계속되는 방황으로 고통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다.

음반 - 전람회회의 '졸업'

“언제 만났었는지 이제는 헤어져야 하네. 얼굴은 밝지만 우리 젖은 눈빛으로 애써 웃을 것네. 세월이 지나면 후 우리 추억 잊혀질까봐 근심스런 얼굴로 서로 한번 웃어보곤 이내 고개 숙이네.” 97년 전람회의 세 번째 앨범중 '졸업'이라는 곡의 한 구절이다. 졸업식이 끝난 뒤 텅빈 교실에서 맹세한 약속은 서로 다

른 세상의 길을 걷고 있어도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얘기들이다. 그저 젊음만으로 쉽지 않은 세상에서 때론 자신의 부끄럽고 낙약한 모습에 화가 나더라도 지나간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마음은 졸업을 앞둔 이들에게 가슴 뭉클함으로 다가온다. 점점 바래져 가는 꿈을 뒤로하고 맞는 '졸업'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잡고 옛 추억의 단편들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의 여유와 흐트러진 웃음을 선사한다.

책 - 엘리트 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예일대 교수를 지낸 전혜성씨가 96년 내놓은 자전 에세이 집이다. 이 책은 지난해 두달간 베스트 셀러에 올라 많은 관심을 모으며 독자들에게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때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은 엘리트가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참다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졸업'은 또다른 시작의 출발점으로 많은 이들이 출발선 앞에 서서 총성이 울려 퍼질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진정한 승자는 '머리'를 가진 엘리트가 아닌 '가슴'을 지닌 참사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한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aongguk.ac.kr

메아리

낙선운동

▲탈무드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일러주라”고 한다. 만약 그 부모가 죽고 자식이 자라 성인이 되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고기는 몸에 좋지 않으니 내가 잡은 이 싱싱한 고기를 먹으라고 내놓는다면 기본이 파괴되는 것은 아닐까. 그냥 누군가가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때 “이런 고기는 몸에 안 좋단데”라고

조언만 했더라면 양자 모두 기본이 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머슴이 주인에 대한 의무 수행은 뒷전이고 자기 이익에만 열안이 되어, 온갖 욕심과 뇌물수수를 했다면 이 주인은 다른 머슴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13일, 이 주인은 새로운 머슴을 구한다고 한다. 주위에서는 또다시 그런 머슴을 구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대다하다.

▲시민단체들이 한심한 한국의 정치사회를 이번 총선에서 바꿔보겠다고 팔을 걷었다.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공개에 대해 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힘을 얻어 이제 낙선운동까지 펼쳐려 한다. 총선이 두달 남짓한 지금, 쓰레기 머슴들은 벌써 떨고 있다. 한국의 정치사회를 이번 기회에 바꿔보자는 국민들과 단체들의 의지에 쌍수

를 들고 환영하는 만큼 통쾌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이슈로 떠오른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와 낙선운동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총선에서 유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질이 나쁘니 안 된다고 결정해 버리는 것은 유권자에게 참고의 의미를 벗어난 월권 행위이다.

시민단체는 현재 벌이고 있는 낙선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넘어 정상적인 인격체인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도 시민단체와 같은 이성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민주정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희정 대학부장